

현대제철
지진에 강한 철
H(CORE)

[산업]
현대제철
미래차 소재개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06



Economy

코스피 2126.33 (+0.71)	코스닥 717.69 (-4.95)
금리 (우대금리) 1.44 (0.00)	환율 (원/달러) 1156.50 (-7.50) (24일)

‘토종 바이오벤처’ 강스템바이오텍 일냈다

신약3상 완료... 아토피 정복 9부능선 넘었다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퓨어스텝 AD주’ 출시 초읽기
데이터 정리 후 연말 결과 공개
내년 1분기 품목허가 신청 추진
세포치료제 시장 구원투수 기대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

‘퓨어스텝 AD주’는 지난 2017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국내 유력 대형병원 11곳에서 총 197명의 중등도 이상 만성 아토피피부염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회사측은 임상결과와 환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9개월 만에 환자투약을 마치고 투약 후 6개월간의 관찰기간까지 총 1년 7개월만에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앞으로 2개월 가량 데이터 정리 시간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2020년 내 세계 첫 줄기세포 아토피치료제의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는 “내년 안에 제품 판매가 이뤄지면 기존 아토피피부염 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내년까지 국내 상용화 및 유럽 임상 2상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번 투약으로 3년 효과

퓨어스텝은 완치가 목표인 치료제라는 뜻이다. 기능상 단순 면역억제가 아니라, 면역조절을 주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말 퓨어스텝의 임상 2상 이후 3년간 약효를 장기 추적한 결과 투약 후 3년간 우려할만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료효과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결과를 관찰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社 告

metro경제
fftk 2019
Future Food-Tech Korea

푸드테크 혁신시대, 글로벌 푸드 투자전문가 한자리에

풍요로워진 세상과 기술의 발달은 더 맛있고, 안전하고, 보기에 좋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컨버전스는 식품이 문화는 물론 산업과 과학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은 미래기술(IT, BT, NT)과 만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식품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자(Value-Creator)입니다.

2019 Future food-tech Korea는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방향 및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미래의 식품 트렌드를 알고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물류, 유통채널, 소셜미디어, 브랜드 및 디자인 확장을 통한 글로벌 방향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식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혁신적 스타트업 인사이트 공유와 식품산업의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Future Food-Tech Korea (FFTK 2019)
- 주 제 :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14:00~17:00 (한-영 동시통역)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전문기업 ‘Fifty Years’ 창업자
- 세션강연 :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
김기봉 글로벌네트워크(미트박스) 대표이사
이윤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02)721-9841, 이메일 : forum@metroseoul.com
(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 등록 : <https://sites.google.com/a/acres.co.kr/fftk2019/>
- 참 가 비 : 11만원(학생은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주 관 : (주)에이커스

metro



‘제2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음주단속 강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을 점검한다.

/연합뉴스

연습생 교육비, 자산으로 똑딱... YG의 회계 매직

YG엔터 회계처리 도마위
연습생 교육비 자산으로
데뷔 못하고 계약 만료 댄
무형자산 당기순손실 처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YG가 연습생과 소속 연예인을 ‘자산’으로 처리해, 대규모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YG 소속 연예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24일 주식시장에서 YG엔터테인먼트

트의 주가는 전일보다 3.25% 내린 2만 8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YG 소속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보이콧’이 계속 되면서 소속 연예인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병재, 오상진이 전속계약 만료로 YG를 떠났고, 업계에 따르면 소속 연예인 다수가 다른 기획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생들의 데뷔도 불투명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YG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YG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달리 연습생 교육비 등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회사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YG가 쌓아놓은 개발비는 25억8000만원이다. 엔터테인먼트사 개발비의 대부분은 연습생 교육 등에 따른 비용이다. 그리고 연습생이 데뷔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화된 비용을 줄여나간다.

반면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 교육비 등을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모두 털어낸다. JYP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8727만원을 ‘신인개발비’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했다. JYP는 매년 수 억 원의 신입 교육비를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회계 처리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문제가 됐듯 엔터테인먼트의 자산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IFRS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

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입수 가능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습생 데뷔가 무산되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극단적인 예로 YG 연습생이 모두 데뷔를 못하고 계약을 만료하게 되면 수 십 억원의 개발비가 모조리 손실될 수 있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이주열의 입에 쏠린 눈... 물가목표·금리 동시인하 시사?

〈한국은행 총재〉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등 공개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주 물가와 관련된 지표를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통화정책 방향 전환(통화긴축→통화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주열 총재가 25일 예정된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할 지, 또 다시 금리인하 '시그널'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부터 물가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번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한은은 연간 두 차례 발간하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다. 경기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은이 현재 물가와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로 유지하기로 하기로 했으나 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를 유지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5월 0.7%로 1월(0.8%) 이후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0%대 물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소

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낮춘 바 있다. 만약 연간 0%대 물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2015년 0.7% 이후 4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총재가 기준금리 향방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내린 시점은 2016년 6월(연 1.25%)이다. 그 뒤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3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이 총재는 불과 2주도 안 된 지난달 31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1일에는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 향방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양국이 이번 G20회담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도 "연준은 가능한 상황을 많이 지켜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G20회담 결과를 보고 미·중 무역협상의 향방을 가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에는 G20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며 "미·중 무역협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장과 나기용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 마크 레드먼 나와 에너지 CEO(왼쪽부터)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원전 운영회사인 나와 에너지와 바라카 원전의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UAE와 원전 정비사업 계약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원전 운영회사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 Company)와 바라카 원전의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아부다비 알 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 1~4호기 등 총 4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 서비스를 5년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원자료를 비롯해 터빈·발

전기 등 핵심 주기를 공급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은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10년 이상 참여해 왔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원전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바라카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네이버'

7.4% 선택... 이유 '성장·비전' 2위 'CJ ENM' 3위 '삼성전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네이버가 뽑혔다. 네이버를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은행권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권 밖이었다.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공동으로 대학생 92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18일까지 '2019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은 2018년 회계결산 결과 매출기준으로 분류된 150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중 주주·공기업 29곳을 제외한 121개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기업은 네이버(7.4%)로 전체 121개 기업 중 최다득표했다. 네이버는 2015년, 2016년 1위를 차지한 후 이번이 세번째 1위다. 네이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



(24.2%)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율 성비는 남자(32.8%)보다 여자(67.2%)가 두 배 높았다.

2위는 득표율 0.2% 뒤진 ▲CJ ENM(7.2%)이 올랐다. 2017년 3위 첫 진입 이후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더욱이 2004년 조사 시작 이래 10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삼성전자(6.2%)마저 제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동 3위에 이어 올해 역시 3위에 꼽

혔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4.4%), ▲대한항공(4.3%), ▲CJ제일제당(4.2%)이 올랐는데, 득표 차가 각 0.1%밖에 불과할 정도로 경합을 벌였다. 4위의 SK하이닉스는 첫 순위진입을, 5위의 대한항공은 3년 만에 10위권에 귀환해 각각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대한항공은 2006년 7위로 진입한 후 11년 연속 톱10, 2014년에는 대망의 1위에 오르며 선방했지만 같은 해 일명 '땅콩회항' 논란 이후 2016년 10위를 마지막으로 순위권 밖으로 물러난 바 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3.6%), ▲포스코(3.4%), ▲현대자동차(3.3%)가 각각 7, 8, 9위를 차지했다. 3개사 모두 그간 지속해서 높은 득표율을 받았던 곳들인 만큼 다시 한번 저력을 확인한 것인데, 특히 8위의 ▲포스코는 2017년 깜짝 1위에 오르기도 했다. 10위의 ▲호텔신라(3.0%) 역시 올해 첫 톱10 진입의 쾌거를 이뤘고, 동시에 '호텔·레저' 업종 역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순위에 등장하는 나비 효과를 일궈냈다. /한용수 기자 hys@

금투업계 'YG엔터, 투자 쉬어야' 분위기

>> 1면 '연습생 교육비...'서 계속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엔터테인먼트는 무형자산의 기준도 다르고 매년 비용을 상각하는 속도도 다르다"면서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JYP 처럼 비용을 즉각 상각하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다"고 말했다. 신인 개발비용을 매년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향후 신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모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YG

에 대한 투자를 쉬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연초 증권업계가 기대했던 연간 영업이익(150억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어닝쇼크(실적충격)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YG 불매운동이 회사의 내재가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 지 알 수 없지만 투자를 잠시 쉬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1분기 벌어들인 음반 및 음원 수익만 147억원가량인데 불매운동이 조직화·장기화하면 어닝쇼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약효 3년지속 이례적... 3상 결과 기대"

>> 1면 '신약3상 완료...'서 계속

이 대표는 "단회 투여로 약효가 3년간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며 "임상 3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수는 약 100만명, 중등도 이상 환자수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퓨어스팀은 우선 국내 중등도 이상 성인환자 10%를 타깃으로

약 1500억원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퓨어스팀의 상용화 이후에는 곧바로 소아용 치료제 생산에 돌입한다. 소아 치료제의 수요는 더욱 폭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을 다시 진행해야겠지만, 성인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줄기세포치료제보다 저렴하게 출시해 가격 경쟁력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스탬바이오텍은 지난 5월 연간 3만 6000바이알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GM P센터 설립했다. 올해 초에는 SK바이오랜드와 관련 기술전수 계약을 맺어 추가 생산기지도 확보했다.

이 대표는 "강스탬바이오텍은 퓨어스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되는 모든 수익은 우리 몫"이라며 "이번 임상 3상 결과에 국내 업계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자가면역치료제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화웨이 사태로 길어지는 반도체 불황, 5G 등 백약이 무효

불황 길어져 실적 전망 하향 움직임
D램 값·팹 투자액 ↓... '상저하저'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다.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를 낮추고, 반도체 수출 낙폭을 전년비 21.3%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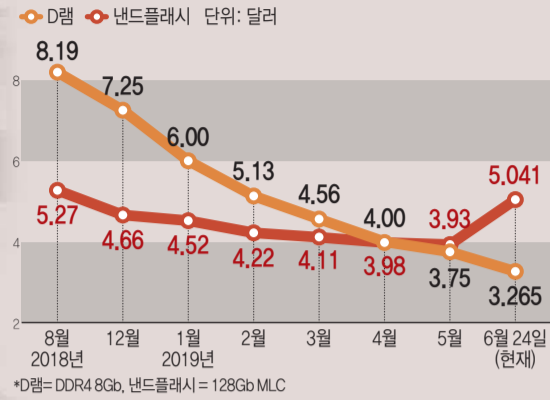
업황 회복 시기도 늦춰지는 모습이 다. 업계는 당초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탓이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최근 DDR4 8G램 가격은 3달러 후반대에서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보다도 5% 가량 더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20%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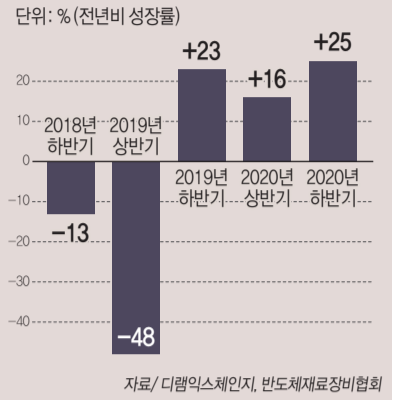
팹 투자액도 기대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올해 팹 장비 투자액을 당초 예상보다 5% 하향 조정한 전년비 -19%로 내다봤다. 반등이 보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메모리반도체가 상반기에만 -48% 감소할 것이라고 추



D램·낸드플래시 가격 추이



메모리 반도체 팹 투자 전망



정했다.

이른바 '상저하저'다. 올해 말 삼성 전자 영업익이 전년보다 절반 이상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SK하이닉스는 올해 적자 우려까지 나왔다.

예측을 넘어선 반도체 불황은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 침체와 더불어 수요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절벽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화웨이는 최근 미국의 거래 중지 조치로 구글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안드로이드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게된 셈이다.

무역 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도 빨

리졌다. 영국과 호주 등 통신사들이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인 메이트 20X 판매를 중단했고, 일본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덜덜아 중국 브랜드들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화웨이와 함께 ZTE를 다시 한 번 안보에 위협을 주는 기업으로 꼽으면서 위기감도 심화됐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도 현실화됐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가 소비자들도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화웨이와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면서 주머니를 닫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서버 업계도 당초 예상과 달리 3분기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투자를 재개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데다가, 내년 게임 스트리밍 등 서비스 확대를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버업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선불리 서버 확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후난해진 CPU 시장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인텔이 새로운 서버용 CPU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가격 논란과 공급난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가 인텔 CPU 위탁 생산을 수주 받았다는 루머가 돌 정도. 반면 AMD가 내놓은 PC용 CPU에 호평이 이어지면서 경쟁 구도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5G 상용화가 지연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이 5G 장비 부문에서 화웨이 퇴출 작전을 가속화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5G 도입 일정을 연기하는 중이다.

5G 통신 도입이 늦춰지면서 IT 업계도 사업 일정 수정을 고민 중이다. 업계는 5G 통신이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새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아왔지만,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무역분쟁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며 "벌써부터 악영향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최악 시나리오는 "내년 美 대선 끝나야 회복"

3분기, 낸드플래시 반등 기대감
D램 가격 하락세 여전히 부정적

반도체 업계가 언제 업황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진다. 2분기에는 회복에 실패했지만, 3분기에는 당초 내다봤던 대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다.

주인공은 낸드플래시다. MLC 128Gb 낸드플래시 가격은 최근 들어 5달러 안팎에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3분기 호황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가

능성이 있다. 업계 2위인 도시바가 최근 정전 사고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D램 가격 전망은 여전히 발목을 붙잡는다. 디램익스체인지는 하반기에도 D램 가격 하락폭을 1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2020년까지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실제로,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고위 임원들을 소집했으며, SK하이닉스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생산

량을 30% 가까이 줄였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잠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부터는 다시 수요도 줄고 장비 투자도 얼어붙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시장은 변수가 많아서 실제 시장 변화 외에는 어떤 분석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는 정치적 분석에 따라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무역분쟁도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5G만 바라보는 반도체... 5년내 전세계 5G 가입자 19억명

에릭슨LG '모빌리티 보고서' 발표



박병성 에릭슨LG 수석 네트워크 컨설턴트가 올해 상반기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구세윤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이 4세대 이동통신(4G) 보다 빠른 속도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2024년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9억건에 이를 전망이다.

에릭슨LG는 24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는 전 세계 180여개 국에서 사업 중인 에릭슨이 반기별로 내는 보고서로, 고객 데이터와 내부적인 리서치를 종합해서 내놓는 전망이다.

올 상반기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용화된 5G 가입 비율은

2009년 상용화됐던 4G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운 5G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많은 통신 사업자가 5G를 상용화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24년이 되면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9억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15억건 보다 27%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총 모바일 가입건수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대규모 5G 가입이 예상되는 시기는 2020년이다.

4G 가입건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

로 보인다. LTE 가입건수는 2022년 약 53억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는 4G 기기를 5G 기기로 바꾸는 사용자가 늘면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여러 시장에서 5G가 상용화되며 몇몇 통신 사업자는 상용화 첫 해에 5G 인구 커버리지(통신범위) 확장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9년 말까지 93%의 인구 커버리지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5G가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칩셋 및 기기 공급 업체들의 강력한 의지

도 중요하다. 모든 주요 주파수 대역에서 5G 스마트폰이 올해 안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5G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북미지역으로 2024년 63%에 이를 전망이다. 동북아시아(47%)와 유럽(40%)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한국이 초기 5G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박병성 에릭슨LG 수석 네트워크 컨설턴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전 세계 5G 가입건수가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국의 가입건수만 300만~400만으로 예상된다"며 "초기 5G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동물병원 할인에 장례비까지... 카드사 '펫팜족' 공략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카드 애견·미용샵 등서 혜택
KB국민 동물병원 이용 30% 할인
신한카드 장례비 20만원 등 지원
삼성카드 펫 정서 위한 음악서비스



KB국민카드의 KB국민마이펫반려애견카드



카드업계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아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할인에 특화된 카드부터 전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1%에 달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만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며 반려견 1마리를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은 월평균 10만3000원, 반려묘는 7만8000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용 사료시장은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였고, 반려동물 용품시장 역시 최근 5년간 9.6%씩 늘었다.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 또한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카드 출시 '급물살' 카드업계는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최근 반려동물 특화카드인 '마이펫 카드(가칭)'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마이펫 카드는 '펫팜족'을 위해 ▲애견 ▲미용샵 ▲미용샵 ▲병원 등에서 풍성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펫코노미카드' 및 'KB국민마이펫반려애(愛)카

드' 등을 내놓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KB국민펫코노미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동물병원 결제대금의 30%를 할인한다.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터파크펫(PE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구입할 때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의 상해 보장 단체보험에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KB국민마이펫반려애카드 동물병원·펫숍·약품구매·장례업체 등 애완동물 업종에서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관련 상품 구입 시 5%를 청구할인해 준다.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은 유기·반려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기부된다.

이어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에서도 각각 탭탭(taptap) I 카드와 아임 조이폴(I'M JOYFUL) 카드를 통해 동물병원 이용 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해 반려인의 눈길을 끈다.

◆전용 음악까지...펫 특화서비스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할인혜택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직접적인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는 카드사들도 등장했다.

신한카드가 최근 개시한 '펫케어 프리미엄 서비스'는 반려견과 관련한 보험 가입은 물론 장례비까지 보상한다. 반려견 장례비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한편, 견주가 상해 등으로 수술을 받게 돼 반려견을 위탁하게 될 경우 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삼성카드는 자사의 반려동물 커뮤니

티 서비스 '아지냥이'를 통해 수의사 등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 관련업체 할인쿠폰 증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삼성카드는 아지냥이에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새롭게 적용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편하고 빠르게 반려동물의 질병과 양육 방법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내 수의사들 또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1:1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삼성카드는 또 아지냥이의 반려동물 전용 음악을 인공지능(AI)스피커에 연동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애완을 넘어 반려(伴侶) 즉, 짝이 되는 인생의 동무나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관련 시장은 카드 상품 마케팅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드사들은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용품의 할인과 더불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우리금융, 국제자산신탁 인수... "비은행 강화"

경영권지분 65.74% 인수 결의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국제자산신탁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65.74%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권 지분 65.74% 가운데 우선 44.47%를 인수하고 나머지 21.27%는 약 3년 후 취득하기로 했으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지분 요건(발행주식수 기준 50% 이상) 충족을 위해 1차 거래시 우리은행이 기보유중인 국제자산신탁 지분 6.54%도 함께 인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조만간 국제자산신탁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과 국제자산신탁 인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신탁사 인수는 지난 4월 자산운용사 인수 성공에 이어 지주 출범 이후 두 번째 M&A 성과로서 지주 체제의 조기 정착과 함께 1등 종합금융그룹 목표 달성을 위한 비은행 확충 전략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자산신탁은 2007년 후발주자로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순이익 23조 6000억원, 당기순이익 3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47%의 높은 수익성을 시현했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영관리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와 은행을 비롯한 계열사의 협업체제가 접목되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국제자산신탁 인수시 그룹 부동산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은행 등 그룹사와 함께 차별화된 종합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캐피탈, 저축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부문 확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퀴즈 풀고 토크하고... 윤종규식 유쾌한 소통

(KB금융그룹 회장)

직원 600명과 '타운홀미팅' 유튜브로 콜센터 직원 격려 셀카 찍고 질의응답 시간도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그룹 내 직원들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KB금융은 윤 회장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휴게공간, 카페 등 자유롭고 편안한 장소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약 6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KB증권·KB국민카드 등의 경우 행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타운홀미팅은 그룹 및 계열사의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이슈 등에 대한 토론, 모바일 퀴즈, 윤 회장의 즉석 답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B증권 타운홀미팅에서는 콜센터 근무직원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상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점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 그룹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고민을 올리자 윤 회장이 "비대면 채널이 확대될수록 콜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순 작업은 챗봇이나 보이스봇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근무환경 개선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콜센터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타운홀미팅 종료 후에는 윤 회장이 추천도서 5종을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직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등 격의 없고 캐주얼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타운홀미팅은 그룹 내 집단지성을 강화하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경영자(CEO)와 직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NH농협은행 '창립 58주년' 연 2.1% 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농협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고객사는 큰만족 실세예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금은 NH스마트뱅킹,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소 가입금액 300만원부터 최고 금액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2개월이며, 연 2.1%확정금

리(세진)를 제공한다. 총 판매한도 20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허옥남 NH농협은행 디지털마케팅 부장은 "이번 고객사은예금은 농협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농협은행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중기부, 신한금융과 1조 벤처펀드 조성

금융권 첫 '자상한 기업'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금융지주회사,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서울 성수동 신한두드림(Do-Dream)스페이스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자상(자발적 상생협력)한 기업' 발굴시리즈의 세 번째 협약이다. 1차는 지난 5월 13일 네이버와 소상공인

연합회, 2차는 포스코와 벤처캐피탈협회와 맺었다. 이번 3차 협약으로 금융권에서는 처음 참여해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투자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협회가 함께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5월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융자중심 방식을 탈피해서 기업투자를 늘려달라는 박영선 장관의 주문에 대한 금융권의 첫 화답으로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벤처펀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청년취업 촉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2022년까지 2000억원 출자를 통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향후 정부의 벤처스케일업 펀드 조성에도 참여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특별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벤처기업협회의 추천과 연계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한남 기자 ericabae1683@

차안에서 집안 온도조절하고, 집에서 차 시동 끄고

이통사, 車↔집 양방향 연결... 커넥티드카 공략 가시화

SKT·KT, 자동차 업계와 손잡고 K7프리미어에 카투홈·홈투카 탑재 이달말부터 다른차종도 확대 적용

SK텔레콤, KT 등 이통통신사가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향후 5세대(5G) 이통통신 시대에는 자동차가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자동차 안에서 집안의 기기를 제어하거나 집안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켜는 서비스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24일 SK텔레콤은 이날부터 판매되는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차량에 홈 IoT 전자기기를 자동차에서 원격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와 집에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홈투카'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카투홈은 SK텔레콤 스마트홈 시스템과 기아자동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유보(UVO)를 연동했다. 이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의 스마트플러그, 가스차단



모델들이 카투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 조명, 에어컨, 보일러 등의 홈 IoT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한다.

이 서비스는 유보 앱에서 SK텔레콤 스마트홈 계정을 연결하면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 스마트홈과 차량이 연동된다. 기존 스마트폰 앱에 연결돼 있는 홈 IoT 기기 목록을 불러온 후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을 터치하거나 음성명령으로 집에 있는 IoT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반대로 집에서 자동차의 기능을 원격으로 끄고 켤 수 있는 '홈투카' 서비스도 선보인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인

공지능(AI) 스피커 '누구'에게 음성명령을 내리면 자동차의 시동, 문잠금, 경적, 비상등, 온도 조절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홈투카 서비스는 이미 기아차 K3,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등에 제공되고 있다. K7 출시에 맞춰 블루링크와 유보 서비스가 적용돼 있는 현대기아차 대부분의 차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KT도 기아자동차 K7프리미어에 카투홈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의 '기가지니' 홈 IoT 서비



/각사

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카투홈' 메뉴를 선택한 후 기가지니 계정로그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카투홈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현대기아차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카투홈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현대 투싼 모델에 최초 탑재해 출시한 홈투카 서비스 또한 이달 말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 유보 서비스가 적용된 현대 쏘나타, 그랜저, 쉐리세이드 등 14종, 기아 K9, 쏘타페, 카니발 등 11종이 대상이다.

더 크게는 미래 신산업동력인 커넥티드카 시장 확대에 전념할 방침이다.

커넥티드 카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 시킨 것을 뜻한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은 이미 차량용 운영체제(OS) 구축 등을 통해 커넥티드카 산업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커넥티드카 판매량은 지난 2015년에 2400만대 규모에서 2023년에는 725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T맵X누구' 서비스에 음성으로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기능을 처음 선보인 이후 최근 T맵 주차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완성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카투홈 및 홈투카 서비스를 기본 탑재해 '연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 세탁기, 유럽서 최고 성능 재증명

꽃 잡지사, 佛 가전유통채널 기본성능부터 편의성 등 호평

LG전자 세탁기가 유럽에서 다시 한 번 성능을 인정받았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잡지 위치는 최근 LG 드림세탁기 12kg 제품(FH4G1BCS2)에 89점을 부여하고 '지금껏 테스트한 세탁기 중 최고'라고 평가했다.

위치는 세탁과 행균, 탈수 등 기본성능뿐 아니라 저소음, 사용 편의성과 스마트 기능까지 탁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LG전자 세탁기는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프랑스 가전유통채널 프낙 다르티도 LG전자를 애프터서비스 지표 세탁기 부문 공동 1위에 올렸다. 프랑스 환경에너



프랑스 프낙 다르티 매장에 전시된 LG전자 세탁기. /LG전자

지관리청(ADEME)와 함께 조사했다.

LG전자 세탁기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톱3에 선정된 바 있다. 애프터서비스 사례와 구매 고객 피드백, 부품 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LG전자 세탁기는 구매 후 2년간 고장률이 가장 낮았다.

/김재용 기자 juk@

LG, 서비스 엔지니어 근무질 개선 박차

신규차량 추가공급, 장비보강 한창

LG전자가 서비스 엔지니어를 위해 근무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신규차량을 2000여대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관련 교육도 이어간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비 보강 작업도 한창이다. 안전모와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와 위험물 보관함, 안전 펜스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 중이다.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준수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LG전자가 서비스 엔지니어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중이다. /LG전자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2단 세탁기와 대형 TV 등 지정 품목에 '2인 1조 서비스'를 도입했다. 작업을 안전하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다. 향후 품목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제네시스, 호주에 해외 첫 '브랜드 체험관'

제네시스브랜드·G70·G80 론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공략 강화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해외 첫 전용 브랜드 체험관을 오픈하고 글로벌 판매 확대에 힘을 싣는다.

제네시스는 24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와 중형 스포츠 세단 G70, 대형 세단 G80의 론칭을 알린다. 또 호주 시드니의 럭셔리 브랜드 밀집 지역인 '피트 스트리트 몰'에 해외 첫 제네시스 전용 브랜드 체험관인 '제네시스 시드니 스튜디오'를 개관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시드니 스튜디오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제네시스 브랜드 체험 공간처럼 차량 판매를 비롯해 각종 전시물, 고객 체험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제네시스가 해외 브랜드 체험관을 호주에 처음 설치하는 것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제네시스 G70.

호주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110만대 수준이지만, 프리미엄 자동차는 11만6000여대로 약 10%를 차지한다. 호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권이며, 인구의 주력 구성원이 구매력이 높은 20~50대가 차지한다.

호주 시장에 진출한 제네시스는 내년에는 멜버른과 브리즈번에도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열고 프리미엄차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판매로 이어가기 위함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3개 차종의 글로벌 판매(공장판매 기준)는 2016년 5만8916대, 2017년 7만8889대, 지난해 8만5381대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도 역대 가장 일찍 연간 판매 3만대를 넘어섰으며 1~5월 판매는 3만74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고성능N'의 즐거움, 짜릿한 메가스톰과 만나다

(캐리비안베이 인기 슬라이드)

현대차-캐리비안베이 공동마케팅 8월 18일까지 'N 브랜드 존' 운영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과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가 함께 신개념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캐리비안베이와 이달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 성수기 동안 캐리비안베이의 최고 인기 슬라이드 '메가스톰'을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을 체험할 수 있는 'N 블루서킷 인 캐리비

안베이'로 꾸며 고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여름 성수기 기간에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의 브랜드존으로 운영되는 메가스톰은 빠른 스피드와 짜릿한 코너링의 레이싱 콘셉트 슬라이드로 캐리비안베이 내에서도 최고 인기 어트랙션이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과 캐리비안베이 메가스톰이 즐거움과 짜릿한 경험을 전달한다는 공통된 콘셉트를 기반으로 이번 연계 마케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톰에 마련되는 'N 블루서킷'은 캐리비안베이 방문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N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우선 현대차는 벨로스터 N 실제 차량을 여름철 분위기에 맞게 분수 형태의 조형물로 제작한 '벨로스터 N 전시존'을 마련했다. 슬라이드 탑승을 대기하는 동안 피약별을 피할 수 있는 'N 선셰이드(Sunshade)존'과 'N 파라솔'도 운영된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미래차 소재개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대제철
지진에 강한 철
H(CORE)

세계 경쟁력 있는 철강사 10위
차 강종별 공장·설비 공격 투자
현대차 수소전기차 로드맵 따라
금속분리판 생산능력 확충 나서

현대제철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신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
mics)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
력 있는 철강사' 10위에 선정되는 등 글
로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수요산업 침체, 수출대상
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값
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현대제철은 공
격적인 신규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보
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강판시장 점유율 확대



'2019 상하이모터쇼'에서 현대제철이 론칭한 자동차 브랜드 'H-SOLUTION'과 자체적으로 설
계 및 제작한 미래지향적 콘셉트카 'H-SOLUTION EV'.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자사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강재의 글
로블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
다. 글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의 경쟁우
위 확보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강종별
전용화 공장 운영 및 설비 신에와 투자
등을 통한 최고 수준 품질 달성과 더불
어 활발한 신규 강종 개발 및 고객사 확
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올해 글로벌 자
동차 판매목표는 80만톤이며 올 1분기

에는 전년동기비 16% 증가한 16만3000
톤의 판매를 기록했다.

또 양산체제를 구축한 특수강 공장의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바탕으로 자동
차용 제품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저
원가·고수익 강종 개발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성장
에 대응하는 신규투자를 활발히 진행중
이다. 올해 3분기 본격 가동되는 기아차

인도 신공장에 차강판을 공급하기 위해
아난타푸르 스틸서비스센터를 지난 3
월 조기가동했다. 총투자비용은 470억
원 수준으로 향후 30만대 수준의 자동
차 생산에 필요한 차강판 공급이 가능
하다. 향후 인도 내 고성장 자동차 수요
가 늘어남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기
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신규사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적 금속분리판 생
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당진에
위치한 첫 번째 양산공장이 3월 상업생
산을 개시했다. 금속분리판 1공장은 추
가 설비투자를 통해 수소전기차 1만
6000대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연말까
지 갖출 계획이며, 현재 2020년 이후의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2공장 투자검토
를 진행 중이다.

◆철강 전문 브랜드로 제품 차별화

현대제철은 특화된 철강 브랜드를 잇
달라 출시, 철강 전문 브랜드로 신시장
을 개척하며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 변
화를 리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내진용 철강재 브랜드인 'HCO
RE(에이치코어)'를 출시한데 이어 올

해 자동차 전문 브랜드인 'H-SOLUTI
ON(에이치솔루션)'을 론칭했다.

현대제철 'H-SOLUTION'은 고장
력·하트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 단위
에서부터 성능과 원가,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물성·성형·용접·방청·도장·
부품화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브랜드다. 현대제철은 'H-SOLUTIO
N'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초고강도
경량차체를 실현하겠다는 현대제철의
의지를 담았다.

현대제철은 올해 4월 중국 상하이 국
가회전중심(NECC)에서 열린 2019 상
하이모터쇼에서 'H-SOLUTION'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콘셉트카 'H-SOL
UTION EV(이하 EV)'를 공개해 관람
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EV는 국
가별 연비규제 강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 소재에 대한 현대제철의
기술력을 소개하기 위해 개발됐다.

안정성과 소재 면에서 최적의 설계를
적용한 EV는 주요 차량 충돌 법규를 만
족하며, 다양한 경쟁 소재 적용으로 동
급 EV 차체 대비 9%의 경량화를 달성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자유롭게 빌려쓰는 재해복구시스템 개발

SK㈜ C&C

제트컨버터 등 3사와 손잡고
클라우드 제트 DRaaS 협력

SK㈜ C&C가 '온리원 재해복구(D
R) 센터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존 시스
템은 물론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시스
템을 하나로 수용해 기업의 재해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SK㈜ C&C는 24일, 경기도 판교 캠퍼
스에서 SK㈜ C&C 신현석 플랫폼 오
퍼레이션 그룹장과 제트컨버터 민동준
대표, 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 에스피
테크놀로지 정정문 상무가 참석한 가운
데 'Cloud Z(클라우드 제트) DRaaS
(서비스형 재해복구)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SK㈜ C&C 대덕 데이
터센터에 멀티 클라우드와 기존 시스
템을 통합 수용하는 '온리원 재해복
구 센터'를 구현해, 국내 기업들이 재
해 복구 서비스를 언제든 자유롭게 빌
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사는 SK㈜ C
&C의 클라우드 재해복구 시스템 및 서
비스 설계를 기반으로 ▲제트컨버터의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재해
복구 솔루션 ▲아토리서치의 소프트웨어

어 정의 네트워크 및 가상화 기술 기반
플랫폼 ▲에스피테크놀로지의 클라우
드 포털 솔루션 등을 '클라우드 제트 D
RaaS'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클라우드 제트 DRaaS의 최대 강점
은 고객이 사용 중인 모든 클라우드와
시스템을 전용 재해복구 센터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들은 자신이 쓰는 IT인프라·클라우드
시스템 별로 재해복구 체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구축과 모니터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왔다.

클라우드 제트 DRaaS를 활용하면 E
RP 시스템의 회계·생산 업무는 AWS,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현하고
인사·구매 업무는 기존 시스템(온프레
미스)으로 사용하고 있어 'ERP 시스
템 재해복구'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과
데이터 백업을 한번에 끝낼 수 있다.

단순 데이터 저장·운영뿐만 아니라
전문 재해복구 센터로서의 각종 서비스
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고객별 재해
복구 시스템 모니터링은 물론 각종 테
스트와 모의훈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이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데이터 규모에 따
라 다르지만 재해복구 서비스 설계에서
구축·운영까지 1~2개월이면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기아차 K7 프리미어.

기아차 'K7 프리미어' 출시 사전계약 8023대 역대최고

K7상품성 개선 등 부분변경
7월1일까지 시승체험단 모집

기아자동차가 K7 부분변경 모델 'K
7프리미어'의 가격을 확정하고 정식 출
시했다.

24일 기아차에 따르면 K7 프리미어
는 2016년 1월 출시된 K7의 상품성 개
선 모델로, 차세대 엔진과 최첨단 기술
등이 적용된 프리미어 준대형 세단이다.

판매가격은 ▲2.5 가솔린 프레스티지 3102만원, 노블레스 3367만원 ▲3.0
가솔린 노블레스 3593만원, 시그니처 3799만원 ▲2.4하이브리드프레스티지 3622만원, 노블레스 3799만원, 시그니처 4015만원 ▲2.2 디젤 프레스티지 3583만원, 노블레스 3760만원 ▲3.0 L
Pi 프레스티지 3094만원, 노블레스

3586만원 등이다.

기아차 최초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
트림 G2.5 GDi 엔진을 적용한 2.5 가솔
린 모델은 최고출력 198마력, 최대토크
25.3kgf·m, 3.0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
력 266마력, 최대토크 31.4kgf·m의 성
능을 발휘한다. 2.2 디젤 모델은 최고출
력 202마력, 최대토크 31.4kgf·m, 3.0
LPi 모델은 최고출력 235마력, 최대토크
28.6kgf·m의 힘을 발휘한다.

K7 프리미어는 후측방 모니터, 차로
유지 보조,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등
최고 수준의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
술과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
되는 12.3인치 대화면 AVN과 풀 컬러
TFTLCD 클러스터, 조작성을 높인 변
속레버, 카투홈·홈투카 기능 등 편의사
양을 대거 탑재했다.

K7 프리미어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영업일 기준 8
일 간 총 8023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했
다. 첫날에만 사전계약이 2500대 몰리
며 준대형 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기아차는 K7 프리미어의 가치
를 고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다. 기아차는 24일부터 배우 유지태가
출연하는 K7 프리미어 브이로그(V-L
og) 콘텐츠 3편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고객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기아차
는 7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K7 프
리미어 시승 체험단을 모집한다. K7 프
리미어 시승 체험단에 선정되면 일주일
간 시승체험을 할 수 있으며, 베스트 리
뷰어는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제
공받게 된다.

/양성운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협력사 육성

5개사와 '리딩 서플라이어' 시작

두산인프라코어가 협력사 맞춤형 지
원 프로그램인 '2019 리딩 서플라이어'
활동을 시작한다.

24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리딩
서플라이어는 선진 사례와 혁신 기법을
전파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두산
인프라코어 동반성장 활동이다. 자체적

인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생산 운영, 품질 보증,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리딩 서플라
이어 대상 업체로 선정된 5개 협력사와
육성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협력사
의 제품 품질과 납기 준수율을 개선하
는데 집중하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협력사 스스로 개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육성기, 사후관리, 자생력 강
화, 내재화 등 총 4단계로 활동을 세분
화했다.

올해는 특히 생산 전 과정을 디지털
화하는 솔루션을 결합해 생산성과 품
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 팩토
리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24일, 경기도 SK㈜ C&C 판교캠퍼스에서 에스피테크놀로지 정정문 상무, 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 SK(주) C&C 신현석 플랫폼 오퍼레이션 그룹장, 제트컨버터 민동준 대표(왼쪽에서 네번
째부터 차례로) 등 4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Cloud Z(클라우드 제트) DRaaS(서비스형 재해
복구) 사업 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SK㈜ C&C



| 독일은 자동차 |

| 이탈리아는 콜로세움 |

| 프랑스는 에펠탑 |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열정과 도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9.5.1 ~ 2019.7.19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악재속 빛나는 벤처캐피탈... 수익률·합병으로 '방긋'

컴퍼니케이, 공모가 2배 올라
7년간 IRR 수익률 17% 달해
'바이오업체' 툴젠-제넥신 합병
VC업체들에 투자금 회수 기회

벤처캐피탈(VC) 업체가 올해 초 기업공개(IPO)를 잇따라 철회했지만 일부 VC업체는 호재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연기했거나 준비 중인 VC가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VC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컴퍼니케이, 청산 펀드 수익률로 주가 호조

지난 5월 23일 코스닥에 상장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이하 컴퍼니케이)는 주가가 공모가인 4500원보다 2배 이상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컴퍼니케이는 펀드들의 연환산 청산 펀드수익률(IRR)이 최근 7년간 17.1%로 높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다른 국내 VC들의 IRR은 업계 평균 10.3%라는 것을 볼 때 1.7배나 앞서고 있다.

황유선 컴퍼니케이 부사장은 "올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현철 한국IR협회 부회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이강신 NH투자증권 부사장,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농림축산투자조합' 펀드를 IRR 18%라는 높은 수익률로 청산한 데다 이번 주 청산하는 직방·네오펙트 등 우량 기업에 투자한 '컴퍼니케이방송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펀드도 IRR이 20.8%로 매우 높다"며 "직방·샌드박스·브릿지바이오 등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펀드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이번 주 펀드 청산시 성공 보수로 약 40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컴퍼니케이가 영화 '기생충'에

투자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됐다. 컴퍼니케이는 총 결성액 120억원의 '우리은행-컴퍼니케이 한국영화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생충에 투자한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컴퍼니케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작용했다. 회사 측은 "상장 VC 평균 대비 컴퍼니케이의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할인율은 55%,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할인율은 1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49억원, 영업이익82억원, 당기순이익62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55%에 달해 실적 면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또한 회사 측은 올해 순이익 8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윤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컴퍼니케이는 2020년까지 10개 기업의 IPO가 예상되는 스타트업원펀드, 200억원 규모의 기업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챌린지펀드 등 청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정돼 있어 고수의 창출이 기대된다"며 "고수익성의 펀드 청산을 통한 수익의 재투자로 출자 비중이 확대돼 배분수익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VC업체 호재

그동안 코스닥 문을 두드려왔던 바이오업체인 툴젠이 여러 차례 코스닥 상장에 실패하자 기존 코스닥 상장회사인 제넥신과 합병을 선택해 VC업체에겐 호재가 기대된다. 제넥신은 지난 19일 툴젠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6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던 툴젠이 최근 코오롱티슈진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들이 악재를 겪는 상황에서 상장 대신 합병

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VC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 툴젠에 추가로 투자해 12.66%(지난해 말 기준)의 지분율로 툴젠의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해왔다. 또 2016년에는 KTB네트워크, 인터베스트 등이 투자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IMM인베스트먼트가 툴젠이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VC업체들은 툴젠의 코스닥 상장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합병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올해 VC업체인 미래셋벤처투자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도 VC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셋벤처투자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힌다. 또한 정부가 최근 현재 1조원 수준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 이 회사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셋벤처투자가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사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해외선물 패키지 할인

KB증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약 3개월간 해외선물 고객 대상 '해외선물 USD 1.9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 고객들이 많이 거래하는 주요 해외선물 상품들을 패키지로 구성해 상품 거래 시 할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해외선물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패키지 상품'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지수선물(나스닥100·S&P500·다우)과 에너지선물(원유, 미니 원유) 등 총 12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영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신규고객 '핫한주식' 이벤트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8월 22일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휴먼포함)을 대상으로 '핫한주식' 이벤트를 실시한다. '핫한주식' 이벤트는 이벤트대상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 스톡봇이 추천하는 5가지 종목 중 고객이 선택한 한가지 주식(만원당)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다. 고객이 선택한 종목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기간 수익률을 달성할 시에는 이벤트 참여시기에 따라 해당 주식을 최대 4배까지 추가 지급하며 선택한 주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도 실시간 제공된다. /손영지 기자

한양증권, 관행 탈피... 임재택의 '변화와 혁신' 通했다

BPR도입 10개월... 업무 211건 개선 스마트워크 추진 '워라밸' 발 맞췄

한양증권이 전사 부문 업무프로세스 혁신(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고 있다.

24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전사 부문 업무프로세스 혁신(BPR) 도입 후 10개월 만에 211건의 업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3월 신입 임재택 대표이사(사진) 취임 후



해 업무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관행적 업무에서 탈피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 ▲업무 표준화 ▲페이퍼리스의 3대 원칙을 BPR 추진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업무혁신을 시도한 결과다. 사실상 TF로 시작한 조직은 올해 1월 O&T(Operation&Technology) 부서로 전환

설정했다. 영업점 수십 가지 일일 업무를 하나의 전산 결재로 통합하고, 전화로 업무처리 시 불편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양증권 O&T부 박상훈 부사장은 "전사 부문의 BPR을 통해 효율성 제고와 핵심업무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영업부서 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시스템 도입으로 단순반복 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인력운용 효

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까지 이뤄지면 직원의 주52시간 근무와 워라밸 트렌드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RPA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사 검색을 통해 필요 기사를 홍보 담당자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보팀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퍼리스 사무환경도 구축했다. 이를 위해 부서장 이상 그룹에 태블릿 PC를 지급했고, 결재 및 각종 회의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이 줄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기준금리 인하 기대... 증권업계 '好好'

ELS발행 ↑2분기 실적 만회할 듯

올해 2분기 시작점부터 국내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가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물려 채권수요가 늘면서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2분기 실적 감소를 방어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또 위험자산으로 잘 알려진 ELS(주가연계증권)도 발행규모가 점점 늘고있어 증권사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금리가 연일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한 주(6월14일~20일)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6.80bp(1bp=0.01%포인트) 하락한 1.42%를, 국고채 10년 금리는 7.70bp 하락한 1.

55%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도 한 주간 국고 금리가 급락하며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장금리 하락(채권값 상승)은 증권사의 채권운용이익으로 돌아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채권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6조원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는 20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나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채권평가액이 300억원 안팎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 2분기에는 금리 하락 폭이 컸던 만큼 평가이익이 1분기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 분석이다. 증권사의 ELS 발행도 올해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과 별개로 위험자산으로 잘 알려진 ELS에 투자자가 물리는 이유는 증시가 저점일 때 투자하고 이후 반등할 때에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진 기자 ujn6326@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조감도.

BRT 지나는 산업·연구단지 '중심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내달 분양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은 오는 7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L3, M5블록에서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세종시 4-2생활권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L3, M5블록은 전용면적 59~99㎡, 총 81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행정

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은 테크밸리(계획)를 비롯해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부지다. 세종시청과의 거리가 4km여서 공공기관 접근성이 좋고 BRT(간선급행버스)를 통한 세종시 내부로의 이동이 쉽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 4-2생활권에 특성화대학 유치용 공동캠퍼스타운(60만㎡)을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카드론 받으면 신용 뚝?... 오늘부터 불이익 사라진다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모씨는 매달 신용카드 2개를 번갈아가며 현금서비스로 200만원 가량을 사용한다. 이 씨는 "장사가 워낙 안돼 생활비가 급할 때마다 매달 5~6번씩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별다

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해 계속 쓰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사용한 현금서비스는 이 씨의 신용점수를 20점 떨어뜨려 5등급에서 6등급이 되게 했다.

총 94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전망 46만명은 한단계 이상 등급 올라

앞으로 이모씨 처럼 2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에 가중치를 부여해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신용점수와 등급하락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소비가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등 2금융권 대출시 발생하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



오는 25일부터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회사의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비자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기존에는 카드·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3배 이상 컸다.

금융위는 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 폭이 더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낮

01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제2금융권 대출 시
여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개선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등급 하락 폭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

은 대출금리를 받은 소비자의 신용점수 등급이 적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중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간 신용평가 체계가 정확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사 RBC비율 상승... DB생명·MG손보 '꼴찌'

(지급여력)

비율 높을수록 재무건전성 양호 국내 보험사 대부분 100% 웃돌아

올해 1분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MG손해보험은 100%를 겨우 넘겼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9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73.9%로 지난해 12월 말(261.2%)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1.2%에서 285.4%로 14.2%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도 242.6%에서 252.1%로 9.5%포인트 올랐다.

RBC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자본이 요구자본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단위: 억원, %, %p)

구분	'18.12월말(A)			'19.3월말(B)			변동폭(=B-A)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생보사	893,231	329,324	271.2	971,590	340,453	285.4	78,359	11,129	14.2
손보사	429,657	177,080	242.6	455,043	180,492	252.1	25,386	3,413	9.5
합계	1,322,888	506,404	261.2	1,426,633	520,946	273.9	103,745	14,542	12.7

/자료=금융감독원

다. 가용자본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 8조2000억원 증가하고 1분기 당기순이익도 2조원 늘면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운용자산 증가에 따라 신용과 시장위험액이 1조3000억원 늘어나는 등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는 RBC비율이 100%를 웃돌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보였다.

회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338.7%)과 교보생명(322.1%)이 300% 이상을 유지한 반면 농협생명(193.4%)과 흥국생명(188.5%), DGB생명(185.6%), DB생명(182.7%) 등이 200%를 밑돌았다.

손보사는 삼성화재(349.6%)와 서울보증(377.6%)이 300%를 훌쩍 넘겼다.

반면 KB손보(190.0%), 흥국화재(184.3%), 롯데손보(163.2%)는 200%를 하회했다. 지난해 5월 RBC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져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던 MG손보는 108.4%로 가까스로 100%를 넘겼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로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RBC비율이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보다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금감원, 28일 기업 공시역량 강화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화재로 담보주택 멸실돼도 연금 받는다

주금공, 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

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KB금융,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1' 획득

KB금융지주는 2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1' 등급, 등급전망 '안정적(S tabl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1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 가장 높은 국제신용등급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주요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다변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자본력 등이 고려되고, 추가적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최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상과 중요성을 반영한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자금조달 기반을 다변화하고 조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도 올해 초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수요가 풍부한 국제금융시장으로 조달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등급 획득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KB금융의 대외신인도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KB증권은 무디스로부터 'A3' 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국내 시중 증권사가 보유한 국제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에스앤피, 피치의 등급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현재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무디스 신용등급은 KB국민은행 'Aa3', KB증권 'A3', KB국민카드 'A2'로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정의선 부회장 현장경영 '결실'

현대차 친환경차 아이오닉, 싱가포르 '국민택시' 됐다

정의선, 현지서 경영진 만나
컴포트델그로와 계약 체결
내년까지 2000대 공급키로
친환경차 선도 이미지 굳혀



최근 개최된 현대차 전세계 대리점대회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왼쪽부터)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지에서 컴포트 델그로그룹 양반생 사장, 싱가포르 현대차 대리점 테오후생 대표 등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장 경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싱가포르 최대 운수기업인 컴포트 델그로와 택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총 2000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싱가포르 친환경 택시 시장을 이끄는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1500대, 내년 상반기까지 500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컴포트 델그로에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컴포트 델그로와 체결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200대 공급계약보

다 800대 늘어난 규모다.

전세계 대리점 대회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지에서 컴포트 델그로 경영진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컴포트 델그로는 지난 1970

년 설립된 싱가포르 최대 운수사업 그룹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60%(1만2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영국, 베트남 등에서도 택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대차는 컴포트 델그로에 지난 2007

년부터 쏘나타(NF), i40(VF), i30(FD, GD) 등을 판매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싱가포르 택시시장 진출 13년만에 누적 2만 6000여대의 택시를 판매하게 됐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행 중인 2만여대의 택시 중 현대차는 1만1000여대로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 택시시장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도 지키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공급 계약 체결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선도하는 업체로 한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맞물려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전략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Grab)과 협력해 코나 일렉트릭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현지 고객들에게 친환경차 탑승 경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과도 협력해 코나 일렉트릭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현지 고객들에게 친환경차 탑승 경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시아 금융, 유통의 허브이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싱가포르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택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택시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현대차의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조선 피격 여파 정유업계 '먹구름'

운송 보험료 인상에 업계 '긴장'
"최악 경우 항로변경까지 고려"
공급 차질→원유가격 급등 우려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 최대 원유 운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고 후 운송보험료 인상 등으로 긴장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수입 물량의 70%가량을, 중국도 8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런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우디 등 걸프국들은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지만 국내 석유 운송 통로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곳의 정세 불안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피격사건으로 운송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며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다른 곳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두바이(Dubai)유를 수입하는 길목이 막히게 되면 브렌트(Brent)유나 서부 텍사스(WTI)산 원유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해역의 입구로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곳은 폭이 30~4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란은 물론 어느 쪽이든 결심만 하면 군사적으로 쉽고 빠르게 봉쇄할 수 있는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 충돌로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연초 45.41달러에서 지난 21일 57.07달러까지 25% 급등했다. 이 기간 원유생산량은 4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이란간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5.74%가 급등했고, 지난 일주일 상승폭은 8.62%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후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했다. 이에 사우디는 하루 100만배럴 생산으로 화답했으나 공급과잉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재정이 악화됐다.

실제 사우디 5월 원유 생산량은 965만 배럴로 감산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 1월 OPEC 감산합의시 사우디의 생산량 목표 기준은 1030만 배럴이었다.

OPEC 감산합의가 6월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OPEC 국가들이 서둘러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우디 요청에 따라 쿠웨이트, UAE 등은 감산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해에서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유조선이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2척), UAE(1척), 노르웨이(1척) 선사의 유조선이, 이번 달에는 노르웨이(1척)와 일본(1척)의 유조선이 기뢰 등으로 추정되는 수중 무기로 공격받아 훼손됐으며 20일에는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드론)가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됐다. 미국은 이번 달 공격의 주체가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지목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 120억 투자유치 성공

작년 시리즈A 이어 시리즈B 유치
1000억 이상 기업까지 인정 받아

바로고는 12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 참여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기술보증기금, 신한캐피탈 등으로 각 사의 자체한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바로고는 이번 투자에서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5월 시리즈A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와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바로고는 배달 대행 사업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물류 사업 솔루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재 영입, 서비스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앞으로도 바로고와 바로고 구성원의 성장, 이윤 물류 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바로고가 12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바로고

며 "바로고 등록 라이더와 가입 가맹점 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회사 정책을 마련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로고의 배달 주문 수행 건수는 2017년(1월~5월) 대비 2018년 같은 기간 67%, 2018년(1월~5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7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디야커피, 버거킹,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뿐 아니라 최근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맨슬리키친과 같은 공유 주방 업체, 육그램과 같은 축산 유통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한국지엠 노조, 파업 못한다... 쟁의권 확보 불발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방안 모색"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린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현장.

/연합뉴스

사내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있다고 해도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있으나 이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향후 사측과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노조 집행부와 파업참여 조합원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우 기자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경기침체·식물국화에 치이는 중소기업

생존위해 '버티기' 전략 86% 투자확대 계획 無

중기중앙회, 기업 60% '내실경영' 집중
하반기 전망 51% '악화', 11% '호전'
애로요인 43% '내수부진' 1위 꼽아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미·중 무역전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내실에 집중하기로 하면서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하반기에 투자확대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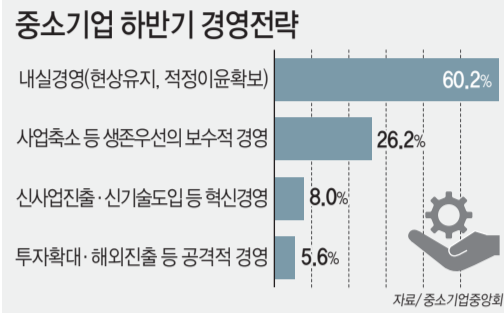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에 적정이윤 확보 등 '내실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답변이 60.2%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사업 축소 등 생존을 위해 '보수적 경영'을 하겠다는 곳도 26.2%에 달했다.

반면 투자확대·해외진출 등 '공격적 경영'은 5.6%, 신사업·신기술 도입 등 '혁신경영'은 8%에 그쳤다. 응답 중소기업의 86.4%가 하반기에 내실을 다지고 보수적으로 경영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하반기 전반적인 경영전망에 대해선 23.4%가 '매우악화', 27.8%가 '다소 악화' 등으로 절반 가량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통'은 37.8%였다. '호전'(다소 호전 10.2%+매우 호전 0.8%)은 11%에 그쳤다.

부문의 하반기 경기전망으로는 매출(악화 49.2% vs 개선 13.8%), 영업이익(악화 48.8% vs 개선 12.6%), 자금(악화 45.8% vs 개선 10.6%), 인력(악화 29.6% vs 개선 7.8%), 설비



투자(악화 23.5% vs 개선 3.5%), 기술개발(악화 21.6% vs 개선 4.9%)에서 모두 '악화'가 '개선'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나머지는 '보통'이었다.

하반기 예상하는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42.9%가 '내수부진(경기침체)'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14.4%), '업체간 과다경쟁'(12.8%), '매출 감소'(11.6%)가 차지했다. 상반기의 경우엔 내수부진→매출감소→과다경쟁→인건비 상승 순이었다.

범위를 좀더 넓혀 향후 우려하는 주요 위험 가운데는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위험도가 51.6%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8.4%가 위험하다고 답해 노동 문제가 하반기를 포함해 향후 중소기업들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다.

'환율 불안정'(27.2%),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24.2%) 등도 위험도가 비교적 높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영 부진이 지속되다보니 많은 중소기업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전국의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왼쪽 네번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슈퍼마켓조합연합회

꼼수 출점·잠자는 법안 슈퍼마켓 사장님 뿔났다

슈퍼마켓조합聯, 개정안 제때 통과 안돼
소상공인 생계 위협 "단체행동 나설 것"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국회와 대기업 유통회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틈을 타 이마트와 롯데 등 대형 유통사들이 '꼼수 출점'을 하며 골목 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가뜰이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고, 대기업들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국회 규탄과 출점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슈퍼마켓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단단히 버르고 나섰다.

슈퍼마켓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초 기

대와는 달리 제때 통과되지않아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참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는 대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국회와 대기업을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핥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백화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시행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과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유통상가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승호 기자

카카오벤처스, '마카롱팩토리'에 10억 투자

카카오벤처스가 모바일 자동차 통합관리 '마카롱'을 운영하는 마카롱팩토리에 10억원을 투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마카롱팩토리는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마카롱팩토리는 카카오 기획자를 거쳐 편성 정보 검색 '레스티'와 병원 정보 검색 '굿닥' 서비스를 공동 창업한 김기풍 대표가 이끄는 팀이다.

마카롱은 모바일 자동차 통합관리 및 정보애플리케이션이다. 자동으로 인식된 주유 기록을 통해 평균 연비, 월별 지출, 보험료 내역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 또한 동일 차종을 사용하는 사용



자와 소통하며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마카롱은 단순 관리를 넘어 에프터마켓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중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에이스침대 "여름밤 '쿨잠' 주무세요"

KB국민카드와 제휴 '쿨잠' 프로모션
면이불 등 구매가격 별 사은품 증정

에이스침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7월21일까지 KB국민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쿨(Cool)잠'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에이스침대 대리점(백화점과 일부 매장 제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KB국민카드 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SE SA 베개속통 세트, 25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소프라움 면이불 세트(퀵사이즈)를 증정한다. 사은품은 행사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구매 고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KB국민카드 결제 시 2~3개월 무



이자 혜택도 마련했다.

에이스침대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혼수를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멤버십 서비스인 '에이스 웨딩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다.

에이스침대 홈페이지에서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멤버십에 가입하면 침대 및 슬립커어 제품구매 금액대별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 여행용 캐리어를 증정하고 스트레스리스 '메이페어(Mayfair)' 클래식 베이스 제품구매 시 리클라이너에 부착할 수 있는 스윙 테이블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이메일 마케팅 '스티비 연동 서비스' 출시

cafe24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이메일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스티비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티비는 개발자나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마케팅 이메일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과 성과 개선 시스템 등

기능이 지원된다. 웹과 모바일은 물론 모든 기기 환경에서 최적화된 노출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스티비 연동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사몰에 보유한 데이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마케팅 작업 시 수동으로 진행했던 번거로운 데이터 연동, 상품 정보 연동 등을 간소화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배한남 기자

철도공·코레일유통, 공공기관 첫 '제로페이'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과 24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코레일유통에서 운영하는 213개 역사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인 민자역사 매장은 제외된다.

공공분야에서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1.2%)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0.5%)를 적용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기존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0%, 8억~12억 규모의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벤처부, 213개 역사 975곳 대상 11월부터 승차권 구입에도 적용키로

0.3%, 12억 초과 규모 소상공인에게는 0.5%, 그리고 소상공인 외 일반 가맹점에는 1.2%였다.

기차 승차권도 제로페이로 살 수 있다. 코레일은 오는 11월부터 기차 승차권 구매 시 348개 코레일 역사 내의 현장 결제와 코레일톡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배한남 기자 ericbae1683@

한국당 “국회정상화는 무효”… 재해추경 통과도 난항

국회, 80일만에 본회의 열렸지만 한국당 의총서 합의안 추진 불발 여야 공방에 ‘반쪽국회’ 여전할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돌입으로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운영은 당분간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부는 한국당의 강경 태세에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갔고, 논의는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

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한국당은 또 경제위탁회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평행선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반쪽 국회’ 운영은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질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특별한 논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별적 등원에 대해 “정쟁 도구될 회의만 참석한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에서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사안을 공정정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의 경우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이나”며 “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 입맛에 따른 ‘입맛 등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조건 없는 등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합의를 시도했고 3당 원내대표는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당이 합의안 추진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불발됐다. 여야와 한국당 내 참여한 이견으로 6월 국회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美 트럼프, 29·30일 韓 공식방문

4월 이후 80일만에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30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두 정상은 4월 정상회담 후 80일만에,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후 2년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모습. /청와대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만남 전인 오는 29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아울러 미국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 관련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유추했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인 30일 오후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출발한다. /우승준 기자

“숭고한 희생치른 韓美… 평화로운 韓 만들 것”

文, 6·25 유공자 靑 초청 오찬 “美 워싱턴에 ‘추모의 벽’ 건립”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역대 정부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위로연을 겸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미군 및 교포 참전용사 37명’, 관련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오찬 주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69년 전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을 넘는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쟁과 질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을 진행한 모습. /연합뉴스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원조공여국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유엔(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함께했던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전쟁영웅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6·25전쟁 때 프랑스대대에 배속돼 화살머

리전투에 참전한 박동하 선생(94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전우들에게’를 낭독했고, 캠프 에이시아(부산 용문 초등학교·13세)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제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6·25전쟁에 참전한 얘기’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캠프 에이시아는 캐나다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고, ‘꼬마 보훈 외교관’으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된 참전유공자들에게 대통령 서명 시계와 건강식품을 선물, 한분 한분 참전용사 이름을 새긴 카드를 동봉해 ‘오늘의 평화를 있게 한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국회 파행에… ‘유치원 3법’ 법사위 회부

패스트 트랙 지정에도 논의 못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두 번째 신속처리 지정안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90일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향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석대성 기자

공공임대주택 ‘아동빈곤가구’ 우선 입주

정부-국회, 주거지원 법안 발의

정부와 국회가 아동빈곤가구 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국회는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빈곤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 여건 개

선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 아동의 주거 여건은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도 조직 내 인간정주위원회 연구에 따라 1990년대 ‘유엔 아동권 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학습 능력·성장에 장애를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마크워커펀에서 열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명에 이르렀다. /석대성 기자

공채시즌 끝났지만 취업문은 ‘활짝’ 현대차·LG·신세계 상시채용 ‘주목’

상반기 공채 시즌이 마무리됐지만, 최근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대규모 정기공채 대신 상시공채나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채용에서 그룹 공채는 절반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상시·수시 채용 소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커졌다.

24일 사람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LG그룹, 신세계그룹, 한화케미칼, 두산그룹, NHN 등이 상시·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10대 그룹 최초로 ‘정기공채’를 폐지했다. 기존 정기 공채 방식으로는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중 상시 공채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R&D, 플랜트기술, S/W, 전략지원 등의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 수시/상시채용을 진행한다.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직무별로 채용 프로세스 및 채용일정에 차이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류접수는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인재풀(Pool)에 정보를 등록하면 채용 진행 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LG그룹은 LG생활건강, LG화학, LG상사, 에스앤아이 등 각 계열사에서 상시/수시채용을 진행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모집부문은 마감일이 6월인 수시채용 기업부터 인재풀 등록 방식으로 2026년까지 받고 있는 기업까지 계열사별로 채용프로세스 및 채용일정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꼭 확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외국계 기업 잡페어’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정기공채 없애고 상시 선발 두산그룹, 계열사별 수시 채용 진행 NHN, 상시인재등록시스템서 모집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LG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면 된다.

신세계 그룹은 연 1회 공채를 진행하고, 그 외 상당 부분은 상시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현재 SSG.COM, 신세계푸드,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9개 계열사에서 상시모집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력 풀 등록, 채용수요 발생 시 인력풀 내 지원서 검토, 서류전형, 실무 면접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다만, 계열사별로 모집 부서와 신입, 경력 채용 여부, 채용프로세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화케미칼도 상시채용을 하고 있다. 사업개발/기획, 생산관리 엔지니어, 환경안전 엔지니어 부문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관련 전공자, 관련 경력3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우대사항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어학 능통자 등이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두산그룹도 상시/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 디지털노베이션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DCAT/실무면접, 경영진면접, 회장단면접,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며, 계열사별로 일부 전형에 차이가 있다. 서류접수는 두산 채용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NHN은 상시인재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시스템/플랫폼 개발자, JAVA웹서비스/플랫폼 개발자, 웹보드 게임 전부문, 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의 분야에서 채용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연·고대 등 사립대 16곳, 개교 이래 첫 감사

교육부, 내달부터 대대적 감사
검·경과 공조... 2년 동안 진행

교육부가 7월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나선다. 성비위 의혹을 받는 성신여대 교수 관련 사안 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16개 대규모 사립대다. 이들 대학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111개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학교다. 종합감사는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 회계와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 교육비리나 공익제보를 위해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 부처 처음으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이번 대규모 종합감사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시선이 따라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뒀다.

전문대학의 경우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나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할 계획이다.

또 사학감사인력 증원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지난해 3개교에서 올해 5개교, 내년엔 10개교로 점차 확대하고, 국민신고센터 등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불수능 예고?... “영어 빼고 다 어려웠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144점, 객관적 난이도 높아
수학 만점자, 가형 줄고 나형 늘어
영어 2017학년도 상대평가 수준

지난 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채점한 결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수학과 탐구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전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역대급 불수능과 비교하면 쉽지 않았다. 절대평가 영어 만점자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상대평가 때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됐다.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은 144점, 수학기형 140점, 수학나형 145점으로 집계됐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보다 6점 낮았으나 수학기형은 7점, 수학나형은 6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지므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반대로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도 내려간다.

국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극히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 올해 모의평가는 쉬웠으나, 객관적인 난이도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2년 전인 2018학년도 수능(134점)보다 10점 높고,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2017학년도 수능(139점)보다도 5점 높다. 현행 수능 도입사상 전년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어려운 모의고사였다.

국어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는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1등급을 맞은 학생은 4.16%로 작년 수능(4.68%)보다 적었다. 만점자 역시 지난해 수능(0.03%)보다 낮은 0.01%에 불과했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기형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130점)이 작년 수능보다 4점 높았다. 1등급 학생 비율도 4.24%로 작년(6.33%)보다 적었다.

수학나형의 경우도 1등급 커트라인(136점)이 작년 수능보다 6점 높았다. 1등급 비율도 4.22%로 작년(5.98%)보다 적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는 가형 0.28%, 나형 0.69%로 작년 수능 때 0.39%, 0.24%와 비교해 가형은 줄고 나

형은 증가했다. 수학기형과 나형 점수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권 학생은 늘었지만, 하위권 학생도 더 많이 늘어나 학생간 학력편차가 커지는 등 하락저하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비율이 7.76%(3만6136명)로 작년 수능(5.3%)보다 늘어 상대적으로 쉬웠으나, 상대평가로 시행된 2017학년도 당시 90점 이상 추정 비율이 7.8%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평가때만큼 어려웠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가능하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불수능을 대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학과 국어는 전년 6월 평가원 모의평가처럼 어려웠고, 수학은 전년도 수능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국어와 수학의 경우 9월 모의고사 때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국영수 모두 변별력있게 출제된다는 예상을 하고 학습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이 (사)한국극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희곡아 문학이랑 놀자’ 단막극전(낭독공연)에 참여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제2회 희곡아 문학이랑 놀자’ 참여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이 (사)한국극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희곡아 문학이랑 놀자’ 단막극전(낭독공연)에 참여했다.

지난 15일~16일 이틀간에 걸쳐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이강백 외 6인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이 중 오태영 작, 백순원 연출의 ‘밥’ 공연에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조정민 교수와 장웅진 학생이 엄마와 아들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은 우수 교수진과 커리큘럼으로 연기교육과 연기에 열을 다하고 있다”며 “매년 꾸준히 전국 단위의 대학연극제에 참가해 개인상과 단체상 등을 수상하고 있고, 국내외 연기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연기 훈련법과 연기 워크숍을 직접 진행해 전공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연기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세종학당재단

현지 교원역량 강화·학위 취득 ‘맞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9일 세종학당재단과 ‘세종학당 교원 학위 취득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희사이버대를 포함해 8개 대학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이에 따라 세종학당 현지 채용 교원의 지속적인 교육 역량 강화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지원, 교

육·연구 기회 확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인적·물적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학당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세종학당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과 임직원들은 경희사이버대에 등록,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

호텔식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로얄층)



침대, 세탁기, 냉장고, TV, 전자렌지에서 에어프라이어 등 풀옵션 제공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호텔식 서비스는 유상제공 됩니다



호텔
100%
분양완료

10년 전문
임대관리 업체 관리계약 체결!

* 임대관리 계약은 스마트하우스 운영사인 일에셋마스터리스(주)와의 계약입니다.

전주 최초
스마트하우스 직접 운영!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공실관리 OK!
행정관리 OK!
시설관리 OK!
연체관리 OK!

공실과 수익률 걱정이 없이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가 직접관리

전주 최초 호텔식
서비스 제공 오피스텔!

공실과 수익률 걱정없는 **전문 임대관리 업체 계약**
베스트웨스턴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호텔식 조식서비스**
마트와 재래시장상권을 한걸음에 누리는 **생활편의입지**

오피스텔과 호텔의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최고급 편의시설**
명불허전! 걸어서 누리는 세계의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옆**
전주 시청 인접으로 **풍부한 수요를 품은 직주근접**

시행사 **KAIT 한국자산신탁** 위탁사 **MERIT+PLUS DEVELOPMENT & MARKETING** 시공사 **이랜드건설 E-LAND CONSTRUCTION**

청약계약안내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49401-04-274501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청약금은 미계약시 전액환불해드립니다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1522-1966

● 분양신고 번호 : 2017-건축과-분양신고-7(2017. 11. 24) ● 건축허가 : 2017년 08월 22일
● 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70012(한국자산신탁) ● 영입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준공예정일 : 2020년 9월 예정

* 상기 CG 및 이미지는, 일러스트 제작되는 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출보전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계약인 한국자산신탁(주)와는 무관 합니다. * 선주 상백 및 천라강영 복원사업, 현장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장은 인, 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되는 이후 무관합니다. * 수익분담중은 신계약인 한국자산신탁(주)는 무관하며 시행사 메리트플러스에서 공중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콘티넨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롯데 유통사업부문, 국가유공자 초청 위로연 행사
롯데 유통사업부문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위로연 행사를 진행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위로연에서는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김건일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100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국가유공자 대표 심옥섭 할머니,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김건일 스마일재단 이사장. /롯데



신세계면세점,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일 고객 중심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왼쪽 네번째)를 비롯해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 및 서비스 기획부터 판매, 홍보 등 전반의 활동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신세계면세점



교보생명 '다솨이 글로벌 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교보생명은 임직원 23명으로 구성된 '다솨이 글로벌 봉사단'이 지난 1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이 찾은 곳은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80여km 떨어진 빈째성(Ben Tre 省) 모까이남현 다록호이 마을이다. 교보생명 봉사단은 다록호이 초등학교 학생 120여명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 도서관을 짓고 도서 2000권과 컴퓨터, TV, 책장 등 도서관 비품을 후원했다. /교보생명



게임빌-컴투스, 임직원과 안양천 환경보존 봉사활동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게임빌-컴투스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금천구 안양천을 방문해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2일 게임빌-컴투스 임직원 및 가족, 사단법인 글로벌세어, 금천생태포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금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안양천에서 진행됐다. 게임빌-컴투스, 임직원들이 환경 보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컴투스



아디다스, 구자철과 함께한 마이드림FC 성료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아디다스 더 베이스' 풋살 경기장에서 축구선수 구자철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젝트 '2019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축구 클리닉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 대표팀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FC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 구자철 선수가 함께했다. /아디다스

다양한 검증 필요한 프랜차이즈사업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연일 아우성이다. 매출 하락, 수익성 악화, 고객 감소, 경쟁점 출현, 세금 폭탄..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이 더욱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통일성과 균일성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많은 창업자는 경험도, 기술도, 전문성도 없기에 다소의 거품 있는 창업 금액을 인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가맹계약을 결정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보상심리가 내재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1, 본사에서 다 알아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
2, 장사에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들

이 안정된 운영을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3, 투자금을 1~2년 안에 회수는 물론 많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회사 대표가 약속했으니.

4, 장사하다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 양수도료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러한 사랑발림의 본사 직원 말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가보면 참으로 요란하다.

거대한 규모의 부스에 유명 연예인의 걸개 사진들, 달콤한 구호와 성공을 보장한다는 각종 플래카드가 창업자들을 마치 성공을 한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위 관련 업계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만은 검증된, 준비된 과장되지 않은,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브랜드들만을 창업자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최소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분석과 협업시스템을 준비한 브랜드만을 단체의 이름을 걸고 소개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2016~2017년 증가세였던 고용 없는 창업자는 2018년에는 8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 있는 창업자는 6만명 감소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임금근로자들의 마지막 출구는 창업일 수밖에 없다.

고용 있는 창업에서 고용 없는 창업자로, 마지막으로 폐업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라 하겠다.

철실하고 절박하다. 그러하기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업박람회를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진정 건실한 프랜차이즈를 소개하고 산업을 순기능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효성, 생태보존·장애인지원 등 사회공헌 박차

노을공원시민모임에 1000만원
파주 에덴복지재단에 2000만원
보훈 대상자에 참치·햄 등 기부

효성이 여름을 앞두고 사회 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효성은 지난 21일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을공원시민모임은 서울마포 노을공원 생태를 보존하고 관리를 맡고 있다.

효성은 2016년 노을공원에 '효성 나뭇의 숲'을 조성하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도 이어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파주 에덴복지재단에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금 2000만원도 기부했다. 기금은 컴브릿지 사업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컴브릿지 사업은 컴퓨터와 노트북



효성은 에덴복지재단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효성그룹과 에덴복지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등 전자기기 부품을 분해하는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100여명이 근무 중이다.

효성은 2014년 처음 컴브릿지 사업을 지원해 지금까지 전산기기 7000대를 기증, 올해에도 후원을 멈추지 않았다.

6.25 참전용사 생활 주택 지원 활동

도 병행했다. 지난 17일 '나라사랑보급자리' 준공식에 참여한 것. 효성은 2012년부터 사업을 지원했으며, 13일에는 남부보훈지청 보훈 대상자 200세대에 동원 참치캔과 햄 세트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급(관리관) 승진 △ 중앙선거관리 기획조정실장 송봉섭 ◇ 1급(상임위원) 승진 △ 대구광역시선거관위 상임위원 임정열 ◇ 2급(이사관) 승진 △ 서울특별시선거관위 사무처장 장재영 △ 서울특별시선거관위 사무처장 임정열 △ 부산광역시선거관위 사무처장 김철 △ 대구광역시선거관위 사무처장 윤재현 △ 선거연수원장 김주현 ◇ 3급(부이사관) 승진 △ 중앙선거관리 홍보과장 김중국 △ 중앙선거관리 조사과장 이종호 △ 부산광역시선거관위 총무과장 김명도 △ 대구광역시선거관위 총무과장 김덕진 ◇ 4급(서기관) 승진 △ 중앙선거관리 감사과 김지현 △ 중앙선거관리 기획재정과 강석봉 △ 중앙선거관리 홍보과 김은하 △ 중앙선거관리 홍보과 서갑중 △ 중앙선거관리 정당과 정기민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파견 김철호 △ 서울특별시선거관위 지도과 조사담당관 류연섭 △ 서울특별시동자선거관위 사무국장 박만수 △ 부산광역시시사선거관위 사무국

장 이종래 △ 경기도선거관위 홍보과 홍보담당관 김중무 △ 강원도원주시선거관위 사무국장 정운원 △ 전라남도선거관위 선거과 선거담당관 김중두 △ 경상북도김천시선거관위 사무국장 박종빈 △ 경상북도영주시선거관위 사무국장 진경식 △ 경상북도영천시선거관위 사무국장 최도연 △ 경상남도선거관위 지도과 지도담당관 신명섭 ◆ 산업통상자원부 ◇ 부이사관 승진 △ 서기관 이승렬 황병소 전민영 △ 기술서기관 박영삼 최형기 정병락

◆ 한국예탁결제원 ◇ 부장 전보 △ 미래발전추진단 단장 조성일 △ 혁신창업지원단 단장 김재웅(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 겸직) ◇ 팀장 전보 △ 일자리창출추진단 선임조사역 이승환 △ 미래발전추진단 선임조사역 이정욱 △ 연구개발부 조사연구센터팀장 박용조 △ 연구개발부 신사업개발팀장 장준우

부음

▲ 손병익 씨 별세, 손순수(한화토탈 총무팀 차장) 씨 부친상 = 24일, 대전시 유성구 온천동로

유성한가족병원 장례식장 특7호, 발인 26일 오전 7시. ☎ 042-611-9700

▲ 송예하 씨 별세, 김창관(대전 서구의회 의장) 씨 모친상 = 24일 오전 8시, 대전 서구 계백로 대청병원 VIP실, 발인 26일 오전 8시. ☎ 042-587-4442

▲ 고상준씨 별세, 고성렬(서대구세무서 근무)·고나영·고경주씨 부친상, 임수경씨 시부상, 최준영(한국폴리텍대교수)·이승원(연합뉴스 부장)씨 장인상 = 23일 오후 9시, 대구 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5일 오전 11시30분, 장지 경북 문경 선영. ☎ 053-655-4503

▲ 조국지씨 별세, 박진원(남양유업 근무)·박진창(남양유업 근무)·박정순·박정욱·박정미씨 모친상, 최지호·이진호(대세산업 이사)·원영일(천안우체국 근무)씨 장모상, 최서윤(아시아투데이 경제부 기자)씨 외조모상 = 24일 오전 7시, 천안 호두나무요양병원 장례문화원 국화실, 발인 26일 오전 8시. ☎ 041-414-4445

미디어커머스 시대 발맞춰 인재 육성·中企 상생 '앞장'



모바일 생방송 채널 '쇼크라이브' 활용
수상자 지원에 지원서 서류 면제 혜택
협력사 해외 진출 위한 마케팅 도와



CJ ENM 오쇼핑부문이 미디어 커머스 시대에 발맞춰 이를 활용한 청년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 상생에 앞장선다.

모바일 생방송 전용 채널 '쇼크라이브'를 활용해 미디어 커머스 청년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미디어 커머스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한국정보사회학회, 고려대학교 CCL(CJ Creator Library·미디어 스튜디오 도서관)과 함께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커머스 영상 공모전 '쇼크라이브와 함께하는 커머스 콘텐츠 제작자를 찾아라'를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해 개인 SNS

에 해시태그(#쇼크인턴 #CJENM #미디어커머스)와 함께 업로드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총 두 번의 심사를 거쳐 8월 7일 대상(1명·상금300만원), 최우수상(2명·200만원), 우수상(3명·100만원)을 선정한다.

수상자 전원에게 2019년 하반기 CJ ENM 오쇼핑부문 공개채용 지원 시서

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쇼크라이브 인턴십에 참여해 미디어 커머스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인턴십 참여 시 쇼크라이브 PD·쇼호스트와 함께 중소기업의 미디어 커머스 영상을 직접 제작, 방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들이 만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영상을 쇼크라이브에서 방영해 중소기업의 미디어 커머스 마케팅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쇼크라이브는 TV홈쇼핑업계 최초의 모바일 생방송 전용 채널이다.

CJmall 앱에서 '뿌쇼뿌쇼', '갯꿀쇼', '인싸쇼핑' 등 5개 모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TV홈쇼핑업계 최대 수준인 연간 1300시간의 생방송을 진행 중이다. 소프, 헤이즐 등의 유명 인플루언서는 물론, 가수 청하, 심센치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해 공연티켓, 스트리밍 이용권을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를 선보이며 모바일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재희 CJ ENM 오쇼핑부문 상생경영팀장은 "미디어 커머스 공모전은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청년 인

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라며 "업계 첫 무료 수수료 방송인 '1사1명품', '1촌1명품' 등으로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상생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CJ ENM 오쇼핑부문은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에 향후 3년간 834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CJ오쇼핑은 성과공유형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제품 판매 실적이 목표치를 웃돈 협력사를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계약상 정해진 몫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우수한 제품력으로 기대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올려준 협력사에게 직접적인 자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협력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케이콘(KCON)마마(MAMA) 등 CJ ENM의 글로벌 컨벤션과 연계해 협력사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CJ ENM 오쇼핑

부문의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홈쇼핑에 진출한 협력사의 사전영상 제작, 현지 판촉마케팅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TV홈쇼핑 무료 방송도 강화했다. 무료 방송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3년간 총 6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앞서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2007년 판매수수료 부담이 없는 무료 방송 프로그램 '1사1명품' '1촌1명품'을 론칭해 현재까지 약 200여개 기업을 지원해 왔다.

한편,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해 업계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미디어 커머스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사의 'DADA스튜디오'와 함께 중소기업의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를 제작해 7개국 SNS채널에 유통한 결과, 100만 뷰 이상의 조회수와 1만7000건의 참여수(댓글·공유수 등)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참여 기업의 80%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 유통사에 입점해 매출을 내는 등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푸드 "2020년까지 越 50억 매출 목표"

베트남 전용 '뉴본' 분유 본격 판매
소화·발육 위한 '신바이오틱스' 적용

롯데푸드가 베트남 시장 전용 분유를 론칭하고, 본격 판매에 나선다.

롯데푸드(주)는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Viet Australia'사와 함께 '뉴본(Nubone)' 분유 론칭식 및 판매계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뉴본은 롯데푸드에서 론칭한 베트남 시장 전용 분유 브랜드다.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과정에 맞춰 1,2,3단계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롯데푸드 황성공장(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에서는 Viet Australia사를 통해 베트남 전역에 판매될 예정이다.

Viet Australia사는 베트남 내에서 분유를 연간 100만켤 이상 판매하며 병원, 약국, 유아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영유아식품 전문 판매 업체다.

롯데푸드는 이번 Viet Australia사와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이스티 그랜드 호텔 사이공에서 진행된 '뉴본' 분유 론칭식에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하이(Pham Quoc Hai) 비엠티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이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푸드

롯데푸드는 베트남 시장에 위드맘, 키드파워A+ 등의 제품을 수출하며 2018년 기준 15억원의 분유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푸드는 이번 뉴본 분유 론칭을 통해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더하며 2020년까지 베트남 분유 연매출 5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뉴본 분유는 부드러운 소화흡수와 올바른 성장발육을 위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바이오틱스란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을 이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Pro-Biotics)과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로 작용하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가 혼합된 형태를 뜻한다.

또한 제조시에 단계별로 건조하는 M SD(Multi Stage Dryer) 공법을 사용해 단백질 파괴를 최소화하고 소화흡수를 개선했다. 또한 유아의 올바른 성장발육을 위해 식물성 DHA와 면역성분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더했다.

롯데푸드는 뉴본 분유와 함께 1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즈 분유 '뉴본 플러스'도 함께 출시했다. '뉴본 플러스'는 저체중 아이와 편식하는 아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편의점도 '구독경제' 시대

GS25, 카페25 월간 유료 멤버십 선포

유료멤버십 '블랙·브라운·그린' 구성
각 선착순 구매자 1000명 한정 운영

일정 금액을 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구독경제'가 신문, 생활용품 정기렌탈 등을 넘어 편의점 원두 커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7월 한달 간 원두커피브랜드 카페25의 아이스아메리카노를 10잔~30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 상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상품은 카페25의 월간 유료 멤버십(이하 유료멤버십) 형태로 운영된다. 유료멤버십 3종은 ▲카페25블랙 ▲카페25브라운 ▲카페25그린이다.

카페25블랙은 7월 한달 간 GS25에서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 30잔을 2만 5000원에, 카페25브라운은 20잔을 1만 7900원에, 카페25그린은 10잔을 9900원에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다.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가 한잔에 17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유료 멤버십 고객은 최대 51%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잔 당 834원 꼴로, 30잔일 경우 5만1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유료멤버십 3종은 GS25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나만의냉장고(이하 나만의냉장고 앱)를 통해 24일 오전 10시부터 27일까지만 판매된다.

3종의 상품은 각각 선착순 구매자 1000명까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한정 운영된다.

유료멤버십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7월 1일부터 한달 간 각각 정해진 수량만큼의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모델이 카페25 유료멤버십을 안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 발송되고 고객이 음료를 이용할 때 마다 잔여 개수가 자동 차감된다. 단, 하루 최대 이용 한도는 1잔으로 제한된다.

이번 유료멤버십은 GS리테일 내에서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의 개방형 소모임 프로젝트 '클로버활동'을 통해 기획됐다.

GS리테일은 직원들의 '클로버활동'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유료멤버십 상품이 클로버활동의 첫 결실로 탄생돼 7월 한달 간 테스트를 실시하게 됐다.

GS25는 이번 유료 멤버십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다양한 구독경제 서비스 상품들을 융·복합적으로 1만3000여개의 지역 사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간다는 계획이다.

성찬간 GS리테일 가공식품부문 상무는 "구독경제, 공유경제 등 치열하게 변화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자 GS리테일 임직원들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유료 멤버십서비스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한편 또 한편 편의점업계를 선도하는 GS25의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뽕뽕이 간장 떡볶이'·'짱구볶음면'... 뉴트로 입은 중년 과자

CU·삼양 '맛손'... 협업 상품 출시

CU가 삼양과 손 잡고 오는 27일 삼양의 장수 과자인 '뽕뽕이', '사또밥', '짱구'를 재해석한 협업 상품을 출시한다.

CU는 최근 '아재미(아저씨를 뜻하는 아재와 한자 미(美)를 조합한 신조어)', '뉴트로'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7080세

대 감성이 재미있고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데 따라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이색 협업 상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뽕뽕이 간장 떡볶이'는 뽕뽕이 과자의 짭조름한 감칠맛과 특유의 짜장색을 모티브로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간장

소스와 쫄득한 식감이 뛰어난 쌀 떡볶이떡으로 구성됐다.

'사또밥 오징어'는 달콤고소한 과자 사또밥과 대표적인 마른안주인 오징어의 이색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상품으로, 쫄득한 진미채와 사또밥 특유의 고소한 옥수수버터맛 소스가 만나 술 안주로 안성맞춤이다. /김민서 기자



“바이오혁신이 새로운 미래 연다” 혈액 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조산 예측

‘2019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33개국 121명 초청... 119개 강연 진행
바이오의약품 개발 현황·동향 살펴



2019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019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연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최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현황과 해외 규제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3개국 121명(해외 90명)이 방문해 119개 강연을 진행한다. 정부·학계·업계 등 3700여명이 참여해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각국의 선제적 규제 대응 방안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공개 포럼에서는 글로벌 항암세포치료제 등 최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혁신적 사고와 협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내외 규제기관, 업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건강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란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3일간 열리는 주제별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개발 동향과 규제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은 생체 면역시스템을 담당하는 항체를 조작해 만드는 ‘항암항체의약품’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치료 사례를 공유한다. ‘세포유전자치료제 포럼’은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와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동향을 살펴본다. ‘혁신기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연속공정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살펴보고, ‘첨단약물전달기술 포럼’에서는 항암치료와 유전자치료를 위한 최첨단 나노-바이오 약물전달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연계 행사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공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청년 멘토링과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말레이시아, 페루 등 6개국 규제당국자와 국내 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 등이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규제 동향과 개발·허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만삭 산모와 박테리아 구성·수 달라

산모의 혈액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 조산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조산 진단 키트도 개발을 앞뒀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사진)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 중의 혈액 내 특징적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조산의 관련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SCI 국제학술지인 ‘미생물학 프론티어스’ 6월호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41명의 임신부(만삭 분만 산모 20명, 조산 산모 21명)를 대상으로 혈액을 수집, DNA를 추출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임신부는 장내 미생물과 같이 퍼미큐티스, 프로테오박테리아, 박테로이데테스 및 액티노박테리아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조산 산모는 만삭 분만 산모의 박테리아 수와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 산모는 퍼미큐티스와 박테로이데테스가 만삭 분만 산모에 비해 더 많은 양이 분포했고, 프로테오박테리아는 만삭 분만 산모에서 더 많은 양이 분포했다. 또 박테로이데스, 락토바실러스, 스프링고모나스, 파스티디오시필라, 바이셀라 및 부티리치코쿠스는 조산 산모에서 더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체 혈액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며 “추후 조산이 있는 여성에서 혈액 미생물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위너프’ 글로벌 경쟁력 입증

‘위너프 런천 심포지엄’ 개최

종합영양수액 중 항염·면역 최적화

아시아 최초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JW의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가 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2019 국제학술대회에서 ‘위너프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와 국제학술대회 규모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정맥경장영양전문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유럽 국가에 수출된 ‘위너프’의 주요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코 바라조니 유럽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박 교수는 “위너프는 혈중 지질이 증



지난 2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위너프(수출명: 피노델) 런천 심포지엄’에서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가하는 우려가 적으며 염증 반응을 유익하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현재까지 출시된 3세대 종합영양수액 중에서 정제어유 함량이 가장 높아 오메가3로 인한 항염작용과 면역기능 개선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첫 유럽 수출 길에 오른 위너프는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으로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세경 기자

“장마철도 ‘패셔너블’하게 보내자”

기능·스타일 두 가지 모두 챙긴 ‘장마템’

초경량 소재에 방수·방풍 효과 뛰어난 세련된 디자인·다양한 컬러 선보여



▲ 코오롱스포츠의 ‘웨더코트’.
▲ 멜리사의 레인부츠 컬렉션.
/코오롱스포츠·멜리사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패션 업계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각 업체들은 디자인과 컬러를 다양화하고, 실용성을 높인 ‘장마템(장마+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 업체들이 비 오는 날 간편하게 입고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기능성에 집중해 투박하고 촌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세련된 디자인이 더해져 패션 아이템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실제, 코오롱스포츠가 지난해 봄·여름 시즌 첫 선을 보인 ‘웨더코트’는 80%가 넘는 판매율을 올리면서 효자 상품에 등극했다. 이 제품은 방수, 방풍, 활동성 등 아웃도어 특유의 기능은 살리면서도 넉넉한 실루엣, 긴 기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에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멜리사의 ‘노난트 판초우의’는 트렌디한 색감과 디자인을 앞세웠다. 방수, 방풍 기능이 뛰어난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비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우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스틱과 로프를 걸어 간이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레인코트나 판초 우의와는 또 다른 스타일을 찾는다면 K2의 ‘물리 레인코트’를 주목해 볼만하다. 여성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속이 비치는 소재가 사용됐고, 몸통 앞·뒷면 길이가 달라 다른 레인코트와 차별화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해 가볍고, 하이테크 신공법인 고주파 접합 방식으로 접합 부위가 매끄럽게 마무리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이에 따라 코오롱스포츠는 올해 ‘웨더코트’의 디자인과 기능을 한층 다양화해 선보이고 있다.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사파리, 일자로 쪽 떨어지는 형태의 코트 등 형태를 다양화하고, 트로피컬 등의 프린트를 적용했다. 또, 베이지, 딥블루 등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인 한편, 일상복으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타 패션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블랙야크와 밀레는 판초우의로 올여름 장마철을 겨냥했다.

블랙야크의 ‘야크 판초우의’는 기능과 스타일, 실용성 3가지를 두루 강조하고 있는데, 내수압 3000mm 코팅 원단에 봉제선을 막는 심실링 처리로 강한

아이스크림으로 만나는 ‘토이스토리4’

배스킨라빈스, 협업 프로모션 진행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가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먼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선보이는 블록팩 세트(1만9800원)는 배스킨라빈스의 ‘아몬드 봉봉’, ‘초콜릿 무스’, ‘체리 슈빌레’, ‘엄마는 외계인’ 네 가지 맛 블록팩과 ‘토이스토리 4’의 인기 캐릭터 버즈, 우디, 보핍, 외계인 캐릭터 리드 4종으로 구성됐다.

‘토이스토리 우산’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매장에서 ‘토이스토리 블록팩’과 케이크를 포함해 1만3500원 이상



구매 시 ‘토이스토리 우산’을 3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버즈, 우디, 보핍, 외계인 등 인기 캐릭터가 우산 전체 디자인에 적용됐고, 우디의 체크 셔츠를 활용하는 등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이 특징이다. 우산 꼭지에는 각 캐릭터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빗물받이 기능을 더해 높은 실용성을 갖췄다.

배스킨라빈스는 ‘토이스토리 4’ 콘셉트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신제품도 선보였다. /김민서 기자

현대모비스, 양궁 국가대표 꿈나무 키운다

초등학교 30명 초청해 어린이 양궁교실

현대모비스가 미래 양궁 꿈나무를 확대 육성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 현대모비스 양궁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30명을 초청해 어린이 양궁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양궁교실은 현대모비스가 양궁인재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방과후 활동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한 체육활동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양궁교실을 확대 실시하고, 양궁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양궁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컴파운드 국가대표 소채원(왼쪽) 선수와 심예지(오른쪽) 선수가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이날 행사는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 선수 전원이 참가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채영 선수를 비롯해 컴파운드 종목 국가대표인 소채원 선수 등 선수단 8명도

두 참석해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활쏘는 방법을 직접 전수하며, 조별시합과 식사, 기념촬영 등을 실시했다.

/정영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SK 대학생 봉사단, 사회문제 해결 성과 공유

사회문제 해결로 활동 방향을 넓힌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상반기 성과를 공유했다.

행복나눔재단은 SUNNY가 '2019 상반기 종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22일과 23일 양일간 지역별로 동시 진행했다.

SUNNY는 워크숍에서 상반기 130개 사회변화 프로그램 활동을 마친 성과를 공유

했다. 대학생 1300여명이 모여 발표와 피드백을 이어갔으며, 후속 계획도 모색했다.

앞서 SUNNY는 올 들어 자원봉사를 벗어나 사회변화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5대 사회상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SUNNY는 전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교육인 '세이프투게더'를 비롯

해 계모임 기반 마이크로 크레딧 플랫폼인 '너 이름이 MMoney'와 청년 우울과 노인 소외를 해결하는 '행복한 콜센터' 등이다.

행복나눔재단 서진석 SI사업그룹장은 "SUNNY 사회변화 프로그램은 문제 도출부터 해결방안 기획, 실행까지 모든 사회변화 과정을 청년 스스로 이끌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SUNNY는 청년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변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사기꾼과 바보 사이



기지수첩

이세경
(유통&라이프부)

'사기꾼이 되니 바보가 되겠다'는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기는 명백한 범죄지만 무지(無知)는 죄가 아니다. 사람을 죽여도 모르고 그랬다면 과실치사가 되고, 일부러 죽였다면 살인이 된다. 고의성은 큰 차이를 만든다. 현행법상 과실치사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코오롱도 같은 셈법을 썼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인보사를 만드는 코오롱티슈진은 그 사실을 알았어도 한국에서 인보사를 파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전혀 몰랐다. 만일 알았다면 국내 환자에게 3700건이 넘게 이루어진 시술이 모두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보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재물손괴는 고의에 의한 것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주장하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 형사

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가 찼 노릇이다.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다. "신문에 버젓이 현대차 광고를 실어놓고, 삼성전자 광고인 줄 알았다고 우기는거나 마찬가지로"라고. 또 다른 대표는 "차라리 은폐가 낫다. 바이오 기업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게 얼마나 망신인가"라고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은 바보가 되기로 했다. 사기꾼이 됐다면 나머지 피해자가 되겠지만, 스스로 바보가 되는 바람에 이를 허용한 보건당국도, 시술한 의료기관도, 700만원을 지불한 환자도, 나아가 첫 유전자치료제를 환영했던 바이오 산업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중이다.

곧 이윤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제임 시절 인보사를 '네번째 자식'이라고 불렀다. 그는 넷째의 유전자가 바뀐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사기꾼이 될 것인가, 바보가 될 것인가. 이젠 그의 판단만 남았다.

/seile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2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터널 속처럼 답답하니 이상황을 잘 극복. 48년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60년생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72년생 소중한 인연으로 커다란 물질적 이익을 본다. 84년생 험담을 들어도 내색하지 마라.
- 말** 42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5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66년생 망신 수가 있으니 인행을 조심. 78년생 작은 실수가 큰일을 만드니 다시 점검. 90년생 이상이 다가오나 인연이 아니다.
- 양** 37년생 가족과 다툼이 있으니 지는 게 이기는 것. 49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61년생 결만 멀쩡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마라. 73년생 일의 진행이 느려도 경거망동은 금물. 85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
- 원숭이** 43년생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후회가 적다. 55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일으킨 정도를 지켜라. 67년생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늦게. 79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91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인 듯.
- 토끼** 38년생 고집을 부리면 일하고도 고맙단 소리 못 듣는다. 50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62년생 남다른 아이디어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74년생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나서면 성공. 86년생 겸손함으로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
- 원숭이** 44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은 별로. 56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8년생 모든 일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어기지 마라. 80년생 좋은 정보로 기쁜 일이 생긴다. 92년생 한발 물러서서 생각.
- 닭** 39년생 비판하면 일이 더 어려워니 긍정적으로 생각. 51년생 권태롭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낭패. 63년생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라. 75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승부. 87년생 공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 돼지** 45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라. 5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69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그 보답을 받는다. 81년생 의견통일이 우선. 93년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 선발물 시작하지 마라.
- 개** 40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난감. 52년생 개미 소피와의 거래가 있을 때 주의. 64년생 변화가 있어도 앞만 보고 전진. 76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8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 돼지** 46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마음이 훌훌. 58년생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하루. 70년생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지 중요하다. 82년생 호감이 가는 여성이 유혹하니 중심을 잘 잡자. 94년생 무슨 일든 양보가 답일 것이다.
- 돼지** 41년생 과소비를 주의. 53년생 성공한 사람을 뒤따라 갈 줄 알아야 실수가 적다. 6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머지않아 내게로 돌아온다. 7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9년생 본인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라.
- 돼지** 47년생 설부터 결정으로 후회를 부를 듯. 59년생 남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뜻하지 않는 도움을 준다. 71년생 대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 8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95년생 상대에게 큰 기대는 금물.



김상희의四季

성실한 사람이 이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바세계 대중을 위해 진리를 전파하고 다닐 때 이교도를 만나는 일이 많았다. 부처님이 싫었던 이교도들은 부처님을 만나면 악담을 퍼부었다.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이교도가 부처님에게 흠을 손으로 긁어모아 집어 던졌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흠먼지는 이교도의 눈을 덮쳤고 얼굴을 뒤덮었다. 그 모양을 본 부처님이 일러주었다.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요. 상대방이 당신의 악담과 악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요." 이리 말씀하신 것은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인과응보와도 같다. 인과응보는 자기가 행한 선행과 악행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다. 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다. 신기하게도 직장인들이 토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디에나 남을 짓밟고 술수를 쓰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술하게 보았는데 분명한 게 있다. 당장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긴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그렇지 않다. 남을 괴롭히며 잘 나가는 사람은 실력이 아닌 술수의 힘일 뿐이다. 실력은 오래지만 술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길게 보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앞서게 된다. 술수보다 능력과 성실이 더 좋은 무기인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남을 괴롭히는 악행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자기에게 나쁜 상황을 불러온다. 쉽게 상처 입는 직장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하는 악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상대방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하나쯤 가슴에 담고 살면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일로 가슴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따뜻하고 성실한 당신이 분명히 이길 테니까.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5	1						
	6		3				8	
		8		5	1			
				9		6	4	
9			6		3	5	7	
		5		2		8		
6			4					9

		9	4	5				1
					1		7	4
9		8				1		7
		2		8			6	
	4		6					5
2	5	4		9				
1					3	6	5	

스도쿠 정답

6	1	8	7	5	2	9	4	3
9	7	8	2	6	5	1	3	4
2	3	5	1	9	7	8	6	4
8	5	2	7	1	9	6	3	4
7	9	2	6	8	3	1	5	4
5	6	1	5	9	2	8	7	3
3	8	6	1	2	7	9	4	5
1	2	7	9	6	8	1	5	3
4	9	3	5	7	4	6	2	8

문제 제공= **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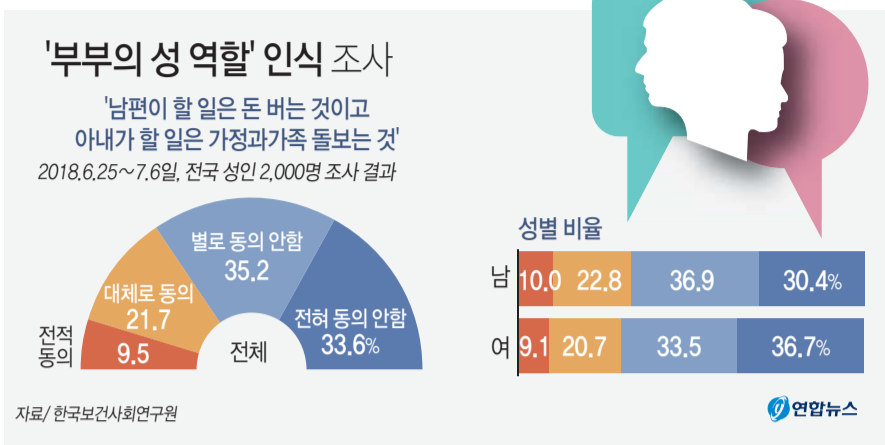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31호

국민 70% “남편 돈벌고, 아내는 가족 돌본다” 동의 안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역할 인식조사
여성 70.2%로 남성보다 3%p ↑
나이 적을수록 ‘비동의’ 응답 많아
미혼 87% ‘전통적인 성역할’ 거부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본다’는 부부 역할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전통적인 ‘남성 부양자 모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의견

에 응답자 68.8%가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원이 2018년 6월 25일~7월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남자 990명, 여자 1010명)에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부부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다.

응답자 중 33.6%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했고 35.2%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하는 경우는 31.2%(대체로 동의 21.7%, 전적 동의 9.5%)였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여자(70.2%)가 남자(67.3%)보다 약 3%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90.1%), 30대 78.8%), 40대(74.3%), 50대(60.4%), 60대 이상(49.5%) 등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미혼의 경우 86.9%로 매우 높았지만, 기혼(64.8%), 이혼·사별(36.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전통 성 역할 모델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차이가 컸

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84.5%)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62.5%)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2%포인트나 높았다.

소득계층으로는 응답자 수가 32명에 불과한 상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났다. 중상층(74.1%)과 하층(52.7%) 간 동의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21.4%포인트로 컸다.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는 가정에 더 중점을 뒀다’는 의견에는 응답자 47.6%만 동의하고, 절반이 넘는 52.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은 24일 NH농협은행과 ‘기술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이대훈 농협은행 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NH농협銀, 혁신성장기업에 1000억

우대보증 등 금융지원 MOU

기술보증기금은 NH농협은행과 ‘기술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와 농협은행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기업들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일자리창

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이다. 기보는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창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은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아울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올리브영 中企 상품전 개최... ‘즐거운 동행’

인지도 향상 제고, 판매 촉진·지원

올리브영이 오는 27일 중소기업의 날을 맞아 ‘상생 노력’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UN이 정한 중소기업의 날을 기념해 중소기업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촉진을 돕는 ‘즐거운 동행’ 상품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즐거운 동행’ 상품전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 41곳에서 진행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즐거운 동행’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올리브영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올리브영은 판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와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상품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상품전의 테마는 최근 화장품 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착한 성분, 착한 가격, 착한 소비’다. 전면에 내세워 소개하는 상품 수도 지난해보다 30%나 늘렸다. 에센스부터 마스크팩, 미스트, 네일스티커, 클렌징기기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올리브영이 ‘즐거운 동행’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브랜드는 현재 42개, 취급 상품 수는 출범 시기인 2016년 5월과 비교해 26배 이상 증가한 370개에 이른다.

/김민서 기자

관광공 “서울서 남해 독일맥주 즐겨요”

내달 21일까지 공사 서울센터서 ‘관광두레 리더스 안테나숍’ 운영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홍보 및 우수 주민사업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한달간 공사 서울센터내 K-스타일허브 5층 지역관광체험관에서 ‘관광두레 리더스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광두레는 숙박, 식음료, 기념품, 레저, 각종 체험 등 관광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협력공동체로, 총 190여 개의 두레가 전국에 분포해 있다. 공사는 이 중 경쟁력과 수용태세를 갖춘 19개의 강소 주민사업체를 ‘관광두레 리더스’로 선정해 이들의 자립운영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안테나숍 행사장에서는 관광두레 리더스 주민사업체의 홍보와 상품 전시와 토란만주, 쑥부쟁이 머핀, 홍화꽃차



관광두레 리더스 안테나숍. /한국관광공사

등 지역 특산물을 가공한 식료품, 지역 유명예술가들의 수공예품 및 흡으로 만든 삼푸와 마스크팩 등 이색적인 상품들을 실제 판매가보다 20% 내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자녀 동반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화관 만들기, 백제소원 향기탑 만들기, 스타킹 브로치 및 도토리 도깨비 만들기 등의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주말인 6월 29일과 7월 6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센터 1층 야외광장에서 관광두레 리더스 10개 주민사업체 관계

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라마켓이 열린다. 행사에서는 안동찜닭 쿠키클래스(버스로기획), 나만의 꽃차 티백 만들기(화전별국 꽃잡), 화관과 팔찌 만들기(컬러팝워딩), 쑥부쟁이 쿠키만들기(구례삼촌), 브로치 및 머핀만들기(두레아트) 등 지역 특유의 멋과 맛을 빠져볼 수 있다. 또한 교도소를 테마로 한 고백 팔찌 만들기 및 죄수복 체험(문화공간 곳간) 등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며, 저녁 이후에는 수제맥주(용오름맥주마을협동조합)와 독일맥주(남해독일마을행복공동체조합)로 무르익는 여름밤을 즐겨볼 수 있다.

김태윤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 팀장은 “관광두레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사업체인 만큼,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팔도 누비며 시장 알린다... 기자단 선발

소진공, ‘소통팔달 2기 기자단’ 내달 8일 마감... 총 40명 선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과 소통하고 공식 블로그(소담소담)를 함께 이끌고 갈 ‘소통팔달 2기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해 공단 블로그기자단의 명칭에 대해 사전공모를 진행,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소통하며 전국 팔도를 달리는 기자단’이라는 뜻의 ‘소통팔달’로 지은 바 있다. 기자단은 특색있는 전국 전통시장을 발굴·소개하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취재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게시하며 이들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통팔달 2기 기자단은 오는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5개월 간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현장의 모습과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기자단에는 블로그 포스팅 이외에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자들을 모집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통팔달 2기 기자단’ 모집기간은 온라인을 통해 내달 8일까지 2주간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전통시장 기자단 20명(블로그 10명, 영상 10명)과 온누리상품권 체험단 20명(블로그 10명, 영상 10명)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공식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보환 소진공 이사장은 “600만 소상공인, 전국 1450개 전통시장의 모습을 모두 담을 수 없겠지만 기자단을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원현장의 매력과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팔달 2기 기자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KISA 인슈어테크 인력 양성

내달 닷새동안 아카데미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슈어테크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슈어테크 아카데미를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KISA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국내 보험사와 협업해 ▲인슈어테크 사례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신규 사업 모델 수립 ▲인슈어테크 아이템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등 인슈어테크 비즈니스 기획 과정을 진행한다.

아카데미 수료생에게는 KISA 핀테크 채용 설명회 참가 기회 및 KISA 핀테크 아카데미 채용 연계 기업과의 면접 기회 등이 제공된다.

인슈어테크에 관심 있는 누구나 7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IS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인 기자 slkn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의 도전이 금융의 역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의 혁신을 넘어
더 나은 금융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끝없는 도전으로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학교 앞 문구점 40곳 환경개선 추진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사업' 성과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생활밀접형 개선사업' 참가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학교 앞 문구점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24일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임에도 소비성향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동네에서 사라지거나 하락세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인 '생활밀접형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문구점은 7월 19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전화600-1772)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국세청 통계 '100대 생활밀접업종' 중 감소업종을 대상으로 신탈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점을 선정했다. 지난해는 이발소가 대상이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서 부산에는 680여개의 소상공형 문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파악한 문구점의 쇠락 원인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2011년부터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일괄 구매하면서부터



다. 또 종합 생활용품점 문점과 팬시점, 대형쇼핑몰 등 온라인구매가 활성화되면서 학교 앞 한 두 곳의 문구점이 추억의 장소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소상공인지원사업 대상으로 문구점을 선정해 간판, 외부전열대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인테리어로 바꾸고, 소비자 맞춤형 경영서비스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 표준안을 선정, 일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상 문구점은 총 40개로 구·군별 2개 내외다. 교육청 등에 안내포스터 부착 등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운영자가 고령인 업체가 많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학교 앞 문구점 함바까보가'라는 제목으로 제보도 받는다"고 말했다. /부산=최인탁 기자 remark@

광주광역시 '광패키징 기술지원센터' 개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개발 등 마케팅 지원 등 판로 개척 도와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가 국가직접사업인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광패키징 기술지원센터'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년5개월여 동안 센터를 운영해 광산업 광통신업체를 비롯 전자부품, 센서업체 등 90여개 패키징 관련 제조기업을 지원, 직접 매출 333억원의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본 센터를 통해 ㈜피피아이는 100G/400G 광통신 모듈 핵심부품 개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부터 적기에 지원받아 지난해 기준 2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 광주시 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30억원 민자 30억원 등 총 310억을 투입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직접사업이다.

투입된 시비로는 2016년말 광용합·전자부품·센서모듈 등과 관련된 제조 패키징 분야에서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 개소했다.

아울러,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는 기술상담, 자문지원은 물론 시제품생산, 장비지원,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함께 마케팅까지 전담지원해 매출로 이어지게 해주고 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 전략으로 기존 생산 제품은 자동화 장비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신규 개발 제품은 설계에서부터 공정 개발, 고장 분석, 제품 측정까지 종합지원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현재, 광통신 부품 업체를 주로 지원했지만, ㈜우리로의 양자암호통신용 모듈 개발, ㈜하이솔루션 및 ㈜오이솔루션의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 개발, 5G 이동 통신용 제품 상용화에도 기술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어 초연결 광융합 분야 산업의 확대 지원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는 시제품 생산 환경을 만들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중이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부품기술인 광융합산업이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에 발맞춰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24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도시아카데미 교육.

평택시 '2019 도시 아카데미 교육' 진행

도시공간계획 중요성 인식 제고

평택시는 24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제2회 '2019년 도시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시공간계획의 중요함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지대학교박인석 교수의 '아파트사회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첫번째 강의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단지가 갖는 문제와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도시재생시대에서 아파트단지의 미래와 계

획에 대한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경대학교 홍운순 교수의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이야기'를 주제로 한 두번째 강의는 녹색문화도시 프라이부르크, 환경도시의 도시계획정책, 주요시설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건축적 환경, 교통, 녹지 등 도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국회·정부·전문가 모여 경전선 전철화 방안 모색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합동 토론회 타당성 검증 기회... 전철화 추진 촉구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정부·전문가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주최하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경유지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진석 교통연구원 박사가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8명의 패널이 경전선 전철화를 놓고 열린 토론회를 벌인다.

광주송정에서 삼랑진까지 총 289km에 이르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다. 경제 성장과 함께 수용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삼랑진에서 순천까지 복선 전철화가 이뤄지거나 진행 중에 있는 등 고속화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개통 이후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게 되면서 안전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가장 느린 철도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노선 신설과 전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으나, 정부 조치가 늦어지자 이번에 국회가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해 4월 30일 경유지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경전선 영향권인 부산·경남·광주 및 전남 21명의 여·야의원과 2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8월과 11월에는 시·도의회 의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조기 전철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

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부터 KD I에 맡겨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높은 B/C 0.85가 나왔지만 근소한 차이(0.011)로 AHP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되던 이어 4월 기재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재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다시 한번 타당성 검증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경전선 전철화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27일 하루 한번 운행에 393분이 소요되는 목포~광주~순천~부산부전간 경전선 느낌보 열차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 도착역인 부전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까지의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줄게 되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두 지역의 동반성장, 남해안권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익산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51개 질환 대상자에 부담금 지원

익산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951개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 질환

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이다.

단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951개 질환), 만성신부전 요양비(투석 중인환자 중 신장장애 2급), 보장구 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이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진단서, 장애인진단서 등이다.

질환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짐 / 19:57

6월 25일(화) 음력 : 5월 23일

수도권 날씨 32 ~ 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6/31
동두천	17/32
가평	15/32
파주	17/30
서울	19/32
양평	17/32
인천	19/28
수원	18/32
용인	18/32
평택	17/33
백령도	17/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관광메카 남대문시장서 세계각국 요리 맛보세요”

서울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130m구간에 푸드트럭 13대 비치 상설 야외공연·프리마켓 등 운영

서울시는 관광 메카 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야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다.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26일부터 10월 까지 남대문 시장 내 메사 쇼핑몰에서 삼익패션타운으로 이어지는 130m 구간에 들어선다. 총 13대의 푸드트럭이 매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한다. 푸드트럭 외에도 상설 야외공연, 수공예품과 사회적 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프리마켓이



서리풀 푸드트럭존 운영 모습. /서울시

열린다.

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특색 있는 명소를 만들며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

하는 사업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그동안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서초구 강남역 인근,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금천구 독산역 일대, 서대문구 인왕시장 등에서 조성·운영됐다.

시는 올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거리와 강남구 탄천·합수부일대에서 푸드트럭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여러대의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행사성 일시적 운영이 아닌 상시·장기 운영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총 527대이며 폐업률은 32.5%인 것

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98.1%에 달했던 폐업률은 2016년 46.4%에서 2017년 19.7%로 줄었다.

시는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 과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지역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내 야간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워라벨’ 실천 중기 154곳 7000만원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추가 선정 총 532개 기업에 2년간 혜택

서울시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기업 문화를 실천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곳이다. 올해 추가로 뽑힌 154개 기업을 포함, 총 53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보안감시 장비 제조업체인 ㈜영도시큐리티를 비롯해 주식회사 세포아소프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스튜디오씨드코리아 주식회사’에는 전화실, 휴게실, 도서관, 요가방, 샤워실, 수면실이 조성돼 있다. 탁구, 스크린야구 등 직원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 무제한 휴가 제도와 재택근무 등 자율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육아휴직 참여 비율이 높다.

#. 줄기세포 엑소좀에 대한 글로벌 원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엑소코바이오’는 장기재직휴가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직원은 해외연수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탄력출퇴근제, 원격근무, 재량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츠, 주식회사 메디랩 등이 선정됐다.

시는 이들 154개 기업과 7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2년 안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 재직자가 3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하면 우대한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는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인턴의 인건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10개 시군이 공공기관과 2차 홍보전략회의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경기북부 특성 살려 전략적 홍보 나서

경기도-10개 시군, 기관과 맞손

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적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공통 이슈를 기초로 한 홍보콘텐츠 개발과,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홍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3월 열린 1차 회의서 IPTV, 옥외전광판, 유튜브, SNS 등 도와 시군이 보유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북부지역 관련 주요 현안을 함께 홍보를 시작해 공중과 방송 취재 지원을 통해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일선 서구청 개청식, 한

탄강 지질공원센터 개소식, 구리시 플라마켓 행사 등의 콘텐츠에 대한 홍보 활동과 10개 시군의 홍보영상물을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보유한 IPTV를 통해 상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유튜브 채널(경기도청, 피스~경기북부 등)을 활용해 경기북부 5월 축제를 비롯, 각 시군에서 제작한 영상물들을 홍보했다.

아울러 노출도가 높은 옥외전광판·G버스TV 등의 매체를 활용해 북부 10개 시군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내달 북한산성 성곽 아카데미 개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참가자 접수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유산과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19 북한산성 성곽 아카데미 ‘북한산성 그리고 풍천유향’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풍천유향(風泉遺響)’은 조선 정조시대 송규빈이 군사문제에 관한 개선책을 논술한 저서의 이름이다. ‘북한산성 그리고 풍천유향’은 인문학 강좌로 조선 후기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곽방어체제와 18세기 이후 산성방어체제의 실상과 문 제점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 이어서 참가자가 직접 북한산성을 보면서 역사와 의미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는 7월에 3회, 하반기는 10월에 3회 예정돼 있다. 회당 50명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북한산성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경기도

구체적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참가대상자는 일반 성인으로, 참가 신청은 6월 24일부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하반기(10월) 모집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산성은 사적 제162호로 1968년 12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총 면적 494,516㎡ 중 고양시 구간이 353,922㎡(72%), 서울시 구간이 140,594㎡(28%)이다. 총 길이 11.6km 중 고양시 구간이 8km, 서울시 구간이 3.6km다. /경기=김승열 기자

노원 서울과학기술대서 27~28일 ‘특허캠프’

서울 노원구는 27~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에서 ‘2019년 제1회 특허 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프는 신산업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 출원 교육을 통해 구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아이디어 창출 및 선행기술 조사 교육 ▲특허명세서 작성실습 ▲특허출원 및 특허정보검색 ▲조별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캠프 참가자 중 우수 아이디어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변리사를 통한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캠프는 구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

MICE 중기 ‘종합 컨설팅’ 원스톱 지원

서울시, MICE산업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5일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따 용어로, 이들 네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센터는 서울 소재 MIC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세무, 노무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경영 이슈에 대한 상담을 지원,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 MICE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접수부터 상담까지 전 과정이 원스톱

으로 진행된다.

서울관광재단 8층에 위치한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콜센터에서는 기업의 컨설팅 요청사항을 분석해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한다. 센터방문 상담, 컨설턴트 현장 방문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월요일에는 노무, 수요일에는 세무, 금요일에는 법무 자문을 제공한다. 해당 분야 전문위원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센터에 상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가 MICE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금융] 동물병원 할인에 장례비까지... 카드사 '펫팜족' 공략 04



[산업] 이동통신사 車←집 양방향 연결 커넥티드카 공략 05



금융으로 세상 이롭게... 두드리면 응답하는 따뜻한 신한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신한은행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본 수단은 본업인 금융이다. 신한은행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지원 플랫폼부터 체험형 금융교육까지 모두 금융에 책임감을 더한 ‘따뜻한 금융’의 일환이다.

◆ 두드림,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지난해 문을 연 ‘신한두(Do)드림(Dream)스페이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한은행의 디지털 인프라와 외부 인프라를 융합한 청년 취·창업 지원 플랫폼이다.

신한두드림스페이스는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라이프스쿨 ▲인큐베이션센터 ▲두드림 매치메이커스 ▲성공두드림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디지털라이프스쿨은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디지털라이프스쿨 1, 2기 총 210명의 청년을 선발해 산업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마케팅, 법률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총 85개의 아이템을 사업화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스타트업 기업의 평균 고용효과가 3.2명을 감안하면 약 2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인큐베이션 센터는 사무공간과 더불어 비즈니스 코칭,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청년 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두드림 매치메이커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취업에 꼭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윈스톱 취업 솔루션이다.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기고만장(氣GO滿場)’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힘을 합쳐 단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고만장(氣Go滿場)이란 부처처럼 먼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의지를 높여주는 기(氣) 살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음 단계는 심전 소프트웨어단지, 상해 슈퍼컴퓨터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현장을 탐방(GO)한다. 취업 준비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직무별 심화 연수 프로그램(滿)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멘토단 기업을 포함한 우수 중소기업들과의 취업매칭을 지원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윈스톱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다.

◆ 금융교육...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신한은행의 금융교육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 직원들의 100% 재능기부활동으로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에 참가한 초등학교생들이 은행 업무를 체험하고 있다.



이달 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국내 유명 스타트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드림 매치메이커스’가 열렸다.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위치한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디지털라이프스쿨’ 3기 입학식이 열렸다. /신한은행

디지털·외부 인프라 플랫폼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창업 자립 도와

초등학생에 ‘어린이금융체험교실’ 고령자 위해 금융사기 예방 교육

사회복지 시설·저소득층에 PC 지원 일회용품 줄이는 환경지킴이 운동도

진행되는 초등학생 대상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부터 진로직업 체험교육에 이르기까지 신한은행의 금융교육은 매년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 중이다.

특히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화문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실제 은행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은행을 접하기 힘든 도서산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신한은행의 이동점포 ‘뱅버드’와 함께 직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금융교육과 보드게임을 비롯해 은행 이용과 관련해서는 뱅버드 체험을 진행한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년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금융교육 및 진로교육 강의와 함께 진로탐색 관련 보드게임, 뱅버드에서의 은행원 체험까지 다양하게 제공한다.

올해는 교육대상자를 고령자까지 확대해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지역 복지관을 통해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나누고 줄여서 지키는 환경
신한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임직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PC를 기증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3~5년 정도 사용한 업무용 PC를 모아 소모부품을 교환하는 수리를 거친 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지원한다. 환경을 살리는 동시에 나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PC’ 사업이다.

기부처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연계된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어르신과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야학시설 교육용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해외에도 전달되고 있다.

사무실, 집,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솔(Sol)선수범 환경지킴이’ 활동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1회용품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해 환경보호의 실질적인 솔루션(Solution)으로 삼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계속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솔(Sol)선수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솔선수범 환경지킴이 활동에는 현재까지 약 3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오르기,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등의 환경지킴이 활동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내 PC 기부한 데이(Day)’.